

제27차 평의원 회의 보스턴에서 성황리에 개최

"미주동창회의 백년대계를 위한 꿈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미주동창회를 존속시키는 힘"



[기사: 김원영 편집장] 제27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보스턴 근교 Crowne Plaza Boston-Natick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전역 총 134명의 전체 평의원 중 51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였고, 위임장 40명, 대리 참석 2명 등 모두 93명의 성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상래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주 동창회는 모든 임원의 희생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매우 양호하다. 이는 우리 동창회를 사랑하시는 평의원 여러분과 미주 동문의 뜨거운 후원의 결과"라고 말하고, "이런 현실적 만족에 앞서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한 꿈과 계획이 서 있어야 하고,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만이 우리가 선택한 이 땅에 영구히 미주동창회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총동창회장은 민경업 상임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동창회 조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당당함. 선배들의 유산을 계승발전시

켜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책임감. 거대한 대륙 속에서 조국과 모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역사의식까지. 그 결의가 여전히 미주동창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먼곳에서도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열정을 보며 고국의 많은 분들이 큰 위안과 격려를 받고 있음도 꼭 전해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모국에서 민경업, 최병갑 총동창회 부회장, 이효원 발전기금 상임이사, 김태일 기금 본부장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15일 전야제(기사 참조), 16일 평의원 회의 오전, 오후 세션(기사 참조)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5일 전야제가 있기 전 이번 행사를 위해 초빙된 클레어몬트 맥키나 대학 이채진 교수의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P 18 참조)와 모국 국방부 김경욱 과장의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우리의 대응전략"(회보 2018년 3월호 P 20 참조)이라는 주제의 두 강연이 있었다. 이채진 교수는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통일은 필요한가?라는 테마로 최

근의 한반도 정세를 집중 조명하였다. 김경욱 과장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수준 및 전망, 우리 대응 전략의 기본 개념, 한미 연합 억제-대응 태세 등을 소개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평의원회의가 1차년도 사업, 재무, 모교발전기금, 종신이사회비, 감사 보고, IRS 규정 안내, 2차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토의 등 시종 열띤 토론을 하며 진행되었다. (P 5, 21, 22, 23, 24 전체 회의록 참조)

16일 저녁에는 이번 행사의 주요 연사로 초빙된 세계 약학계의 저명한 학자인 College of Pharmacy UGA 대학의 주중광 교수가 "The Big Picture (Future of the USA)"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했다. 주 교수는 과학자의 시각으로 그동안 미국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공부해 왔던 주제인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은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사향 길에 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학적 통계와 역사에 나타난 사실을 예로들며 미국의 장래를 풀어냈다. 주 교수는 결론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앞으로도 리드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 "미국은 1. 대학과 학문의 번영, 2. 이민 유입, 3. 에너지 혁명, 4.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5. 다양한 문화 흡수, 6. 인공 지능의 발전, 7. 국가간 공존 번영 의지 등 일곱가지의 원동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조 강연이 끝난 후, 모국에서 미주평의원 회의 축하 공연을 온 모교 음대생들의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자들은 정세연 (판소리 05), 김도연 (가야금 10), 신지희 (거문고 13), 이현준 (대금 11), 윤하림 (해금 07), 김수연 (타악 14) 등 6명이 공연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전통 국악의 향연을 미국땅에서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성낙인 모교 총장이 수여하는 공로패 수상식에서 영광부문상은 김진형 (문리 54),

>> P 2 아래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6월 15~17일, Boston)



윤상래 (수외 62)

제14대 회장

환영사

존경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님과 동문님,

제27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모든 임원의 희생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매우 양호합니다. 이는 모두 우리 동창회를 사랑하시는 평의원 여러분과 미주 동문들의 뜨거운 후원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한 꿈과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꿈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선택한 이 땅에 영구히 존속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미주동창회의 고령화를 우려하여서 작년 이 자리에서 서울대 미주 동창회 기금을 설립하셨습니다.

즉 SNUAUSA CENTURY FOUNDATION이 바로 그것이며, 목표액인 3백만

불은 우리의 꿈이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의 결심과 비전이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미주동창회 평의원님은 동창회를 대표하는 엘리트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 1만여 명의 미주 동문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미주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 미주 동창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를 작년 이 자리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김병연 위원장과 한귀희 부위원장께서 여러 방안으로 연구를 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러한 안전을 토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 우리들의 소중한 분을 보냈습니다. 송순영 회장님은 우리 동창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송순영 회장님을 기리며, 우리는 “자성인의 단체”라는 그분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반목과 질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합쳐서 미래를 위한 진실한 진군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신운남 (농대 70)

차기 회장

환영사

제27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신 동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많은 동문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로 한 지 벌써 일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누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 미국땅에 이민 와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며,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간동안, 좌절하여 주저 앉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힘 중에는 우리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어느 누구도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의 이름이, 그 궁지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BC 4세기 희랍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각자의 몫이 잘 분배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를 꿈꾸며 역사는 체제를 바꾸어 가며 진화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우리가 동창회를 통해 이루어 보려는 이상과 꿈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고 물으며 동문들의 충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모국, 지금은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모국이라도 여전히 힘든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한편, 이 땅에도 동창회가 모이고 기열 안식처가 하나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는 길에, “두려움을 정복하는 자 세계를 정복하라!” 라고 그의 병사들에게 설

파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의원회의는 모든 동문이 소중히 가꾸고 지켜 나갈 동창회를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사명감을 갖고 각종 동창회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이상적인 의견을 나누며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평의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모교를 향한 사랑의 불씨를 다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라틴어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um spiro, spero.”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꿈을 꿀 것이다!

동문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 한 분 한 분 이를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며, 초석을 놓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창회를 만들어 갑시다.

Yes, we can! Together, We can make SNUAA USA greater!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6월 15~17일, Boston)



성낙인 (법대 ?)

서울대 총장

축사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입니다.

한국인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윤상래 회장님과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님, 평의원 동문님. 역사와 교육의 도시로 유서 깊은 이곳 보스턴에서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7차 정기 평의원 회의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동문님들께서 이곳 미주에서 보여주시는 값진 성취와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으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와 함께하는 대학'의 세가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성으로 무장된 가슴이 따뜻한 인재인 '선(善)한 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해 '선한 인재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고,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만만한 기부' 모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한 인재 양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독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와 30만원의 기초생활비 지원을 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서울대학교의 세 가지 미래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키고, 세계무대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학생들이 하루 한 끼 천 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천원의 식사'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전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돈은 비록 천원이지만 음식의 질과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실질적 학비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개에 이르는 SNU in the World Program의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각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잠재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노벨수상자급 우수 연구자로 육성하고자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합리적 합의에 이르는 능력을 기르도록 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지성과 덕성을 갖춘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상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추진해온 그간의 활동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동문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지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인재 양성에 호응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반도에는 세계를 뒤흔드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길이 될지 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안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나운 광풍을 다스려 민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순풍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한미 간의 우애는 견고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신뢰는 정부들의 역량 못지않게 해외 동창회 같은 민간단위의 협력 위에 쌓이는 법입니다. 분단과 빈곤으로 고통받던 나라의 사람들을 그 거대하고 부강한 대륙에 안착시켜 오늘의 결실을 이루게 한 역사의 뜻은, 어쩌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모교와 함께, 미주동창회의 건승을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신수정 (음대 ?)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축사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윤상래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여하신 평의원 여러분.

올해로 27회를 맞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윤상래 회장님까지 14대를 이어오며 미주 전역의 동문들과 함께 해온 미주동창회의 역사는 곧 서울대학교 재외동창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앞으로도 길이 빛나길 기원합니다.

윤상래 회장님께서 미주동창회장에 취임하신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윤상

활약하신 이항렬 동문과, 남가주지부 회장 및 미주동창회 조직국장으로 봉사하신 성주경 동문, 백옥자 동문이 공로상을, 미주동창회보 논설위원이자 뉴욕지부 동창회장으로 헌신하신 김창수 동문, 뉴잉글랜드 지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미주동창회의 중신이사이자 감사로 봉사하신 박영철 동문, 그리고 미주동창회 제13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마다 않으시고 지난 2년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해 오신 손재욱 동문님께서 참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적은 미주동창회만이 아니라 40만 서울대인의 자랑스러운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이 후배들의 모판이 되어 면면히 계승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4대를 이어오며 미주 전역의 동문들과 함께 해온 미주동창회의

역사는 곧 서울대학교 재외동창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앞으로도 길이 빛나길 기원...”

래 회장님께서 미주 동문들과 나눈 말씀에 대해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동창회 조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여 돌파해 나가겠다는 당당한. 선배들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책임감. 거대한 대륙 속에서 조국과 모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역사적의의까지. 그 결의가 여전히 미주동창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먼 곳에서도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며 고국의 많은 분들이 큰 위안과 격려를 받고 있음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한반도에는 세계를 뒤흔드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길이 될지 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안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나운 광풍을 다스려 민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순풍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한미 간의 우애는 견고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신뢰는 정부들의 역량 못지않게 해외 동창회 같은 민간단위의 협력 위에 쌓이는 법입니다. 분단과 빈곤으로 고통받던 나라의 사람들을 그 거대하고 부강한 대륙에 안착시켜 오늘의 결실을 이루게 한 역사의 뜻은, 어쩌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모교와 함께, 미주동창회의 건승을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총동창회장으로서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불가피한 일정 있어 참석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대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신 민경업 총동창회 상임부회장님께 제 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과 재미 동문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제27차 평의원 회의 보스턴에서 성황리에 개최
- 제27차 평의원 회의, 제14대 회장 환영사 / 자기 회장 환영사
- 제27차 평의원 회의, 서울대 총장 축사 /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축사
- 제27차 평의원 회의, 전야제
- 제27차 평의원 회의록 1
- 제27차 평의원 회의, 환영 만찬
- 제27차 평의원 회의, 모교 국악과 초청 연주회 / 평의원들 보스턴 지역 관광
- 제27차 평의원 회의, 모교 국악과 초청 연주회 / 평의원들 보스턴 지역 관광
- 제27차 평의원 회의, 제14대 집행부 1차 회기 결산
- 동문동정, 효당 이세영 님, 이준형 (공대 48) 명예회장 / 메릴랜드대 최규용 교수, 뉴욕지역 동화 소식
- 동문문화, 객상회 / 김태형
- 제35차 북미주 서울의대 학술대회
- 정태영, 미국 독립기념일의 역사적 의의
- 하기환 (공대 66) 박사 인터뷰
- 이항렬, 미국의 힘과 권위 /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 장학제 발표
- 화보로 보는 제27차 평의원 회의
- 화보로 보는 제27차 평의원 회의
-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이재진
- 기고: 위싱턴주 2018 6월 SNU Forum, 구 소련연방 코카서스 3국으로의 초대, 강윤희
- 기고: 위싱턴주 2018 6월 SNU Forum, 구 소련연방 코카서스 3국으로의 초대, 강윤희
- 제27차 평의원 회의록 2
- 제27차 평의원 회의록 3
- 제27차 평의원 회의록 4
- 제27차 평의원 회의록 5
- 후원금 집계
- 동창회비 집계
- 동창회비 집계
- 미주 동문 업소록
- 미주 동문 업소록
-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광고
- 광고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6월 15일, 전야제)



전야제

[기사: 김원영 편집장] 15일 오후 1시부터 제 27차 평의원 회의 등록이 시작되었다. 2시부터 5시까지 이번 행사를 위해 초빙된 클레이몬트 맥키나 대학 이채진 교수의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P 18 참조)와 모국 국방부 김경욱 과장의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우리의 대응전략" (회보 2018년 3월호 P 20 참조)이라는 주제의 두 강연이 있었다.



이채진 교수



김경욱 과장

전야제는 15일 금요일 6시, 이상운 (수의대 87)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윤상래 회장의 환영사와 박영철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윤상래 회장의 미주동창회 14대 임원단 소개 후, 미주동창회장 표창패, 공로패 수여식이 열렸다.



박영철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사회자 이상운 사무총장



윤상래 회장

봉사상에는 서병선 (음대 65), 구자동 (상대 70) 동문, 감사상은 백순 (법대 58), 박종수 (수의대 58), 한재은 (의대 59), 참여상은 제영혜 (가정 71), 공로상은 김원영 (미대 81), 배지선 (수의대 94), 황보민영 (공대 03) 동문이 수상했다.



미주동창회 14대 임원단 소개



미주동창회장 표창패, 공로패 수여식

이어서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공로패 수여식과 장학위원회 (윤상래, 김용구 공동위원장)가 주관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장학회원은 미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문의 학구열과 지도자 자질을 중시, 격려하는 목적으로, 모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이수한 후 미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동문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모두 11명의 동문이 수혜를 받았다. (수혜자 명단 참조)



뉴잉글랜드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공로패 수여식

저녁 식사를 부페식으로 마친 후, 이상운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참석 평의원과 지부 소개는 각 테이블에서 제일 학번이 어린 동문이 일어나 그 테이블에 앉은 선배 동문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뉴잉글랜드 이정수 (공대 71) 동문 소개



김현용 (수의대 62) 동문 소개

모두 화기애애한 가운데 반갑게 서로를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 주최측은 작년처럼 보스턴의 명물인 랍스터의 인형을 준비하고 재미 있는 년센스 퀴즈 게임을 진행했다. 이미지로 단어 맞추기 게임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자칫 지루하기 쉬운 분위기를 세

▶ **미주동창회 표창패, 공로패**
서병선 (음대 65), 구자동 (상대 70)
백 순 (법대 58), 박종수 (수의대 58)
한재은 (의대 59), 제영혜 (가정 71)
김원영 (미대 81), 배지선 (수의대 94)
황보민영 (공대 03)

▶ **미주동창회 장학생**
이충호 (Juilliard School), 유상욱 (U. Minnesota)
제갈소망 (USC), 이종욱 (U. Minnesota)
강유진 (U. Minnesota), 이나래 (U. Minnesota)

롭고 즐겁게 유도했다. 매년, 미주 동창회의 평의원 회의에 총동창회 임원단이 참석하는데, 올해에는 모교에서 민경업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최병갑 총동창회 부회장, 이효원 발전기금 상임이사, 김태일 발전기금 본부장이 참석했다. 토요일 평의원 회의 점심을 '모국 총동창회장의 평의원 환영 오찬'으로 명명하여 작년처럼 제27차 평의원 회의를 후원하여 주었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남가주, 북가주, 뉴욕, 뉴잉글랜드,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조지아, 하트랜드, 커네티컷, 오하이오, 한국에서 부부동반으로 100여 명이 넘는 동문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남가주 노명호 (공대 61) 동문 소개



미주동창회 장학생 이충호 동문의 피아노 연주

전야제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게 되어 다음날 평의원회를 감안해 전야제가 끝나고 하기로 한 지역동창회 회장단 모임은 적당한 시간을 정해 하기로 했다.

이상민 (U. Minnesota), 유종은 (U. Michigan)
김솔아 (U. Maryland), 벅 솔 (U. Maryland)
김수지 (U. Wisconsin)

▶ **뉴잉글랜드 장학생**
Chris Jun, Hayeun Kim, Jinyung Suh
Seongjun Park, Stephanie Park

▶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공로패**
김선혁 (약대 59), 정태영 (문리 71)
김제성 (공대 87), 이상운 (수의 87)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6월 16일)



제 27차 평의원 회의

[기사: 김원영 편집장, 회의록: 황보민영]
제 27차 평의원 회의가 6월 16일 오전 9시 15분 윤상래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교가 제창 순서가 있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상운 사무총장은 평의원 성원 보고에서 먼저 평의원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설명하였고, 이날 회의 참석 51명, 위임장 40명, 대리 참석 2명 등 모두 93명으로 성원이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윤상래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창회 사업을 하며 느낀 소회를 밝히며, 동문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첫 회기에 동창회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SNUAA Century foundation을 위해 중신 이사비를 기반으로 3백만 불 모금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토대로 동창회의 백년 대계를 꾀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순영 제10대 회장님의 동문과 동창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자 송순영 회장님을 기리는 특별 장학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신용남 차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전임회장님들이 운영하시며 이루어 오신 업적을 보전하고, 이에 연속하여 동창회를 보다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본단 70여년 만에 남북이 극적인 만남을 이룬 것처럼 우리 동창회도 발전을 꾀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평의원님들과 그외 모든 동문님들이 애교심을 발현하셔서 우리 동창회가 미국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남 차기 회장

신수정 모국 총동창회 회장은 민경업 상임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윤 회장님께서 14대를 이어온 미주 동창회가 총동창회를 비롯한 모든 동창회의 모범"이라고 말하고, "동창회가 가진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당당함, 선배들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책임감, 역사 의식까지 그 결의가 미주

동창회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한반도는 세계를 뒤흔드는 태풍이 일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로 함께 지켜보고 있다. 한미간의 연합은 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못할 일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데에 양해를 구하며, 조국의 안녕과 모교의 변화를 위하여 미주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민경업 상임 부회장

평의원 회의 시작

제26차 평의원 회의록은 이상운 사회자가 주요 부분을 발제/낭독 [동의: 황선희(공대 74)/ 제청:고일석(보건 69), 윤상래/ 전체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 하였고, 김정수 (문리 69) 평의원의 제안으로 오찬 중에 각자 전문을 읽고, 오후 세션을 시작할 때 인준 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며, 오후에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다.

제1차년도 사업 보고

■ 포상 위원회 (윤상래 회장)

- 각 지부장님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
- 금년 수상: 서울대 총장 공로패 9인, 총동창회장 표창 및 공로패 11인, 미주동창회장 표창, 감사, 공로패 9인
- 차기부터는 더욱 적극적 추천을 요청

■ Brain Network 위원회 - 김병국 (공 71)

- 윤상래 회장님의 추천으로 2018년 BN을 맡게 되었음
- 위원회 구성: 하용출, 이강원, 강명규, 김병국
- 3/31 MIT Stata center에서 2시간 반에 걸쳐 브레인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연사 1: 강기동 박사 - 한국 반도체의 시초
- 연사 2: 김진화 대표 - 불확정성 전문가
vi. 진행 과정
1. 1/20/18 준비모임: MIT 학생회장, Harvard 학생회장의 의견에 따라 기존 10-16시

로 계획되었던 세미나를 오후 (오후 3-5:30) 시간으로 조정하고 연사도 2명으로 줄여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그리고 그 후 넷워킹 세션을 가짐



2. 3/31/18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약 50명 참여,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 부총영사, 보스턴 교민 4-5분
3. 리부 회의: 향후 브레인 네트워크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 포함
vii. 강연에 대한 소개
1. 강기동: 반도체 생산 기술 탄생, 한국반도체의 출발, 삼성에 인수된 과정,
2. 김진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 어떻게 4차 산업 혁명의 키가 될 것인가
viii. 보스턴 코리아 4월 5일자에 기사가 게재되었음.

● **한재은:** 평소 브레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변경되면서 참석이 어려웠음. 예전과 같이 평의원 회의와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 **윤상래:** 원래 BN의 목적은 서울대 동문만이 아니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2012년 오인환 회장께서 평의원회에서 시작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동문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나누고자 하였음. 또한, 평의원회의의 주 목적은 따로 있으므로 분리, 브레인 네트워크는 향후 international 서울대 Think tank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서 시작된 것임.
● **김병국:** 평의원회에서 진행하는 경우, 청중이 동문만으로 한정됨. 특히 보스턴의 지역적 특성상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므로 대중적인 행사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오인환:** 미주 동창회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평의원회의에서 개최했었던 것. 이번 행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여 사용했 것인지? 만일 지역 동창회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면 상관이 없으나, 미주 동창회의 예산으로 진행했으면, 평의원회에서 하는 것을 제안함
● **이상운:** 이 문제는 결산 보고서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

습니다.
● **윤상래:** 오인환 전 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동창회에서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별도의 후원금을 약 8,000불 받아 행사를 치렀고, 실제 사용된 비용은 그보다 조금 더 높았다.
● **김정수:** 브레인 네트워크가 일회성 강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강의 내용을 회보 등에 실어 전 동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강의 내용도 사전에 원고를 받아 이를 검토, 심사하여야 함
● **김병국:** 바인더 뒤에 브레인 네트워크 강의 자료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 **이상운:** 웹사이트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일석:** 오인환 전 회장님의 의견에 동의. 기본적으로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평의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지역 사회 한인들의 참석을 도모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함
● **윤상래:** 앞으로 평의원회에서 brain network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발언] 조하연: 지금 회의 순서는 보고가 진행될 순서이니, 우선 이에 집중하고 추가 안건은 차후에 논의합시다. 동의 - 윤상래, 제청 - 이영인

■ 회보편집위원회 - 김원영 (미 81)



동창회보 발행 목적
- 동창회의 집합이, - 미주 동문의 삶을 기록한다, - 식견을 나눈다

- 규모가 큰 일부 동창회 뿐만아니라 소규모의 지역 동창회를 배려하고 서로를 하나로 엮는 회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역의 원로 동문, 활약하는 동문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음.
- 워싱턴 주 (시애틀) 에서는 SNU 포럼을 매달 개최하여 동문 뿐만아니라 지역 동포 참여를 도모한다. 지역 신문 등에 소개됨. 동창회 활동의 모범사례로 판단해 매월 세미나 내용을 회보에 소개함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6월 16일, 오후 6시 환영 만찬)

환영 만찬

[기사: 김원영 편집장] 16일 오후 6시부터 제27차 평의원 환영 만찬이 시작되었다. 단체 사진 촬영에 이어 사회자 이상운 사무총장이 개회 선언을 하였고, 윤상래 회장, 신웅남 차기 회장의 환영사, 민경업 상임 부회장의 축사, 이효원 상임이사가 성낙인 총

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모교 총장 공로패는 남가주 김진형 (문리 54) 동문을 비롯 9명(수상자 명단 참조)의 동문에게 증정되었고, 신수정 총동창회장 표창 및 공로패는 뉴잉글랜드의 박영철 (농대 64) 동문을 비롯해 11명(수상자 명단 참조)의 동문에게 증정되었다. 김태일 기금본부장의 모교 현황 보고 후, 저녁 만찬과 와인을 즐기며 각 테이블 별로 평의원 회의 환영 만찬의 밤 행사



민경업, 박영철, 손재욱, 김용구, 김현영, 성주경, 백옥자, 최병갑 등문 >> P 8 전체수상자 명단 참조



학술상: 김용구 (공대 66) _ 뉴잉글랜드



참여상: 박영철 (농대 64) _ 뉴잉글랜드



공로상: 성주경 (공대 68) _ 남가주



봉사상: 김현영 (수의대 68) _ 필라델피아



공로상: 백옥자 (음대 71) _ 남가주



참여상: 손재욱 (가정 77) _ 필라델피아



이효원, 김진형, 이재진, 김은한, 송창원, 주중광, 고일석, 이진구, 지흥민 등문 >> P 8 전체수상자 명단 참조



참여부문: 고일석 (보건대 69) _ 뉴잉글랜드



영광부문: 김진형 (문리 54) _ 남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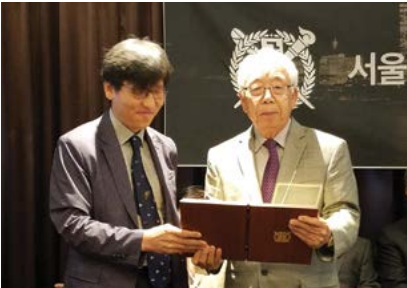
사회기여부문: 이진구 (농대 60) _ 뉴욕



발전기금부문: 주중광 (약대 60) _ 조지아



영광부문: 김은한 (의대 60) _ 뉴잉글랜드



학술부문: 송창원 (문리 53) _ 미네소타



학술부문: 이재진 (문리 55) _ 남가주



발전기금부문: 지흥민 (수의대 61) _ 필라델피아



김도연 (가야금 10), 이현준 (대금 11), 신지희 (거문고 13), 윤하림 (해금 07), 김수연 (타악 14) 정세연 (판소리 05)

모교 국악과 초청 연주회

[기사: 홍선례 편집위원] 16일 만찬 연회장에서는 모교 국악과 학생 초청 연주회가 열렸다.

한국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5명의 연주자들은 6월 12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였다. 입국심사를 하는 중, 한 연주자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심사에 불통과되어서 구금되어 있어요. 여행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자는 그 시간에 미장원에 있었는데, 미장원 안은 음악소리와 소음으로 셀폰 신호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한참 후에 메시지를 발견, 급히 미주동창회에 도움을 청했다. 구금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연주자들은, 정세연 (판소리 05), 김도연 (가야금 10), 신지희 (거문고 13), 이현준 (대금 11), 윤하림 (해금 07), 김수연 (타악 14) 등 6명이다. 그들은 한국음악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홍선례 (음대 70) 미주동창회 문화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연주자들의 열띤 연주로 인해 Constellation Room은 그 열기로 후끈거렸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평의원인 관객들은 국악 선율에 심취되어 매우 숙연한 분위기였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앵콜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성주경, 오홍조, 노명호 등문과 연주자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음대동문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모두 불통이었다. 안경, 셀폰, 손 등에 검색약이 묻어 내 골은 말이 아니었다. 연주자들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후에 안 일이지만, 셀폰을 빼앗긴 상황이었다고 한다. 구금이라는 단어에 놀라 윤상래 회장은 총영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신웅남 수석부회장은 연주자와 통화 도중 끊어지고... 미주동창회 임원들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다. 마치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두시간 남짓 지난 후, 카톡이 왔다. "우리 방금 풀려 났어요" 휴! 처음으로 계획한 평의원회 연주에 자질이 생길까 봐 마음을 졸였던 시간... 이젠 안심이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순간이었다. 관광비자로 미국행을 하려던 일행은

를 즐겼다. 이어서 이번 행사 키노트 스피커로 초빙된 College of Pharmacy UGA 대학의 주중광 교수가 "The Big Picture (Future of the USA)"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했다. 주교수는 그동안 미국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공부해 왔던 주제인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은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사황 길에 들었는가?"라는

주제를 1시간여에 걸쳐 강연을 했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모국에서 미주평의원 회의 축하 공연을 온 모교 음대생들의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전통 국악 향연을 미국땅에서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국악 공연을 끝으로 윤상래 회장은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의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는 작별인사를 했다.

국악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해를 받아 입국심사에 걸림돌이 된 것이었다.

오디션을 거쳐 엄선된 국악과 석사 박사 과정의 후배들이 먼 길을 왔고, 더구나 두 시간이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이니, 16일의 공연은 정말 귀하고 값진 연주였다고 생각한다.

연주자들은, 정세연 (판소리 05), 김도연 (가야금 10), 신지희 (거문고 13), 이현준 (대금 11), 윤하림 (해금 07), 김수연 (타악 14) 등 6명이다. 그들은 한국음악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홍선례 (음대 70) 미주동창회 문화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연주자들의 열띤 연주로 인해 Constellation Room은 그 열기로 후끈거렸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평의원인 관객들은 국악 선율에 심취되어 매우 숙연한 분위기였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앵콜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정세연 (판소리 05)

첫번 곡은 이현준 동문의 대금 독주 "청성곡"이었다. 이 곡은 가곡 중 하나인 태평가의 선율을 기악의 독주곡으로 변주한 곡이다. 대금의 청아하고 구슬픈 가락이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다음은 거문고 신지희, 단소 이현준 동문의 "천년만세", 이 곡은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주로 연주되던 풍류음악 중에서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하는 합주

를 즐겼다. 이어서 이번 행사 키노트 스피커로 초빙된 College of Pharmacy UGA 대학의 주중광 교수가 "The Big Picture (Future of the USA)"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했다. 주교수는 그동안 미국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공부해 왔던 주제인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은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사황 길에 들었는가?"라는

주제를 1시간여에 걸쳐 강연을 했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모국에서 미주평의원 회의 축하 공연을 온 모교 음대생들의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전통 국악 향연을 미국땅에서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국악 공연을 끝으로 윤상래 회장은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의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는 작별인사를 했다.



랍스터 식당 앞에서 기념 사진.

평의원들 보스턴 지역 관광

통통 살이 오른 지역 명물 랍스터로 점심...

[기사: 정태영 편집위원, 문리 71]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마지막 날인 6월 17일(일)엔 지역 관광을 희망하는 평의원들이 투어에 나섰다. 18인승 밴을 렌트했으나 예상외로 참가자가 많아 추가로 몇몇 동문이 차를 대여 4개팀으로 분승하여 오전 9시 30분에 회의장인 크라운 호텔을 출발했다.

1차 목적지는 뉴햄프셔 햄프턴 비치에 있는 랍스터 식당이었다. 워니워니해도 매사추세츠의 명물은 랍스터이니 점심도 할 겸해서였다. 식당 주차장에 내릴 때만 해도 제방에 막혀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식당 2층 옥외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 파란 바다가 하얀 백사장과 함께 시원스레 펼쳐졌다. 예상외의 풍경에 일행은 감탄사를 쏟았다. 여름의 작열하는 태양빛은 강했지만 북쪽 지역의 선선한 기후는 야외 식사하기에 딱 알맞았다. 이 지역의 6월 날씨는 전혀 덥지 않다. 야외에서 식사하고 나들이 하기엔 아주 적격이었다.



이용락 (공대 48, 시카고) 전 미주동창회장이 큰 랍스터를 즐기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플레이트에 서빙된 통통살이 오른 랍스터 2마리에 실레이는 마음으로 식사가 시작되었다. 사이드로 나온 싱싱한 삶은 옥수수과 감자칩, 드레싱으로 알맞게 버무린 양배추 샐러드가 식욕을 한층 돋구었고 일부는 시원한 맥주로 즐겼다.

다음은 2차 목적지인 메인(Maine)주 요크(York)에 있는 너블 등대(Nubble Lighthouse). 그런데 뉴욕과 남가주 LA에서 온 평의원들이 돌아가는 시간과 비행기 출발 시간이 빠듯하다며 2차

목적지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해 18인승 밴을 타고 보스턴으로 중도 회향했다.



너블 등대 (Nubble Lighthouse)

햄프턴 비치 식당에서부터 메인의 너블 등대까지 가는 북행(北行) 길은 아름다운 해안도로였다. 이른바 시닉 루트(scenic route), 오른쪽 바다는 금방 세탁기에서 나온 하얀 와이셔츠처럼 깨끗하고 청아했다. 왼쪽 도로변은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저택의 큰 집들이 연이어졌다. 여유롭고 넉넉한 풍경이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었다. 어떤 저택은 마치 백악관처럼 하얗고 컸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요크(York)는 영국풍 분위기를 물씬 풍겨 이 지역이 뉴잉글랜드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홍혜례 (사대 72, 시카고), 이용락 전 회장 부인, 안선미 (농대 65, 워싱턴), 이영민 (사대 74, 뉴잉글랜드), 뒤 배경에 이채진 교수, 윤상래 회장, 김정수, 정태영 동문 등이 보인다.

너블 등대는 마침 아버지날이자 일요일이어서 무척 사람들로 붐볐다. 뽕박질 하면 건너 뽕만 큼 좁은 바다 회랑 건너 빨간 등대지기 집과 하얀 등대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눈에 들어왔다. 일행은 관광을 마치고 오후 5시 경 호텔에 무사히 돌아왔다.

시카고 동창회의 이용락 (공대 48) 전 미주동창회 회장(2001-2003)이 운전하신 분들이 수고했다며 저녁을 산다고 하여 인근 한식당에서 저녁 먹으면서 자리를 이었다. 화기에애한 이야기가 끝날 줄 몰랐다. 이용락 회장은 만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몇년 전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고 이채진 교수는 1957년 정치학과 재학 시절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 한국거주) 동문과의 얽힌 비화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참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6월 16일 국악 공연 / 17일 보스턴 관광)

곡이다.



신지희 (거문고 13)

다음 동초제 홍보가 중 '박타령부터 돈타령까지'를 판소리 정세연동문이 김수연동문의 소리북 반주로 열창하였다. 내용은 추석 명절, 가난한 홍보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 신세 한탄을 한다. 어느덧 재비가 몰어온 박씨가 여물게 되자, 온 가족이 모여 박을 탄다. 그 박 속에서 쌀과 돈이 많이 나오고 홍보 가족이 흥겹게 노는 대목이다.

이어 홍선재 작곡 '산'은 신지희 동문의 거문고 독주였다. 이 곡은 한국의 북한산에서의 정취를 거문고 선율로 그린 곡으로, 1악장 능선, 2악장 서낭당, 3악장 새벽으로 이어지며 1악장과 3악장은 정악풍이고 2악장은 산조풍이다.

다음 강상구 작곡,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구음 정세연, 가야금 김도연, 해금 윤하림 등의 동문들이 연주했다. 이 곡은 정수년의 앨범 "Beautiful Things In Life"에 수록된 곡이다. 정세연동문의 구음은 낮은 저음으로 가야금과 해금 선율에 은은히 부합되는 조화를 이루며 소박한 감동을 주었다.

다음은 Bart Howard 작곡, “Fly Me To The Moon”인데, 이곡은 Frank Sinatra의 앨범, 'It Might As Well Be Swing'에 수록되어 있다. 송지섭 동문 편곡으로 가야금, 거문고, 소금, 해금, 타악으로 연주하였고, 국악기로 연주되는 Pop곡은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묘미가 있었다.



이현준 (대금 11)

다음 Libertango는 탱고의 거장 Astor Piazzolla가 1974년에 작곡한 곡이며 Libertad(자유)와 Tango를 합친 이름이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타악의 연주는 그 서정성 깊은 소리, 그리고 스타카토의 효과가 드림처럼 작용해, 듣는 이들은 흥겨운 리듬에 몸을 흔들며 춤이라도 출 듯한 분위기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연주했는데, 본조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모음곡 형식으로 엮어서 6명 전원이 연주하였고 관객들이 함께 부르며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정겨운 시간이었다.

앵콜 곡으로는 홍난파 작곡, “고향의 봄”을 연주하였다. 또한 신청곡이 들어와 정세연동문이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와 심봉사가

석자들의 귀를 사로 잡았다. 이날 관광의 차량 운전은 윤상래(수의 62) 미주동창회 회장, 이정수(공대 71), 정태영(문리 71), 이진희(수의 87) 동문이 수고를 해 주었다.

***참가자:** 이용락 전 회장(공대 48, 시카고) 부부, 이재진 교수(문리 55, 남가주) 부부, 오홍조 전 회장(치대 56, 남가주) 이전구 전 회장(농대 60 부부, 뉴욕), 노명호(공대 61, 남가주) 윤상래 회장(수의 62, 뉴잉글랜드), 안선

미(농대 65, 워싱턴DC. 회장), 성주경(상대 68, 남가주), 김정수(문리 69, 시카고), 박경일(농대 69, 워싱턴DC), 홍선재(음대 70, 남가주), 백옥자(음대 71, 남가주), 이정수(공대 71 뉴잉글랜드), 정태영(문리 71, 뉴잉글랜드), 홍혜례(사대 72, 시카고 회장), 강신용(사대 73, 남가주), 이영민(사대 74, 뉴잉글랜드), 김인중(농대 74, 남가주), 허유선(생활과대 83, 뉴욕), 이진희(수의 87, 뉴잉글랜드), 서울대총동창회 민경업 상임부회장 부부, 최병갑 총동창회 부회장. 등 26 분이 참가했다.

날아와 연주해 준 후배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내며, 특히 창작국악 '우리모습 대표' 정세연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 공연이 끝나기 까지 수고하신 모든 미주동창회 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또한 이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도 미국 전역에 한국음악이 널리 전파되는 기회가 종종 있기를 바란다.

1시간에 걸친 진지한 연주는 모두를 감동시켰고, 윤상래 회장님이 특별 선물을 주는 등, 이번 연주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다. 멀리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 서울대 총장 공로패 수상자

참여부문: 고일석 (보건대 69) _ 뉴잉글랜드
영광부문: 김은한 (의대 60) _ 뉴잉글랜드
영광부문: 김진형 (문리 54) _ 남가주
학술부문: 송창원 (문리 51) _ 미네소타

참여부문: 이병준 (상대 55) _ 남가주
사회기여부문: 이전구 (농대 60) _ 뉴욕
학술부문: 이재진 (문리 55) _ 남가주
발전기금부문: 주종광 (약대 60) _ 조지아
발전기금부문: 지홍민 (수의대 61) _ 필라델피아

▶ 총동창회장 표창패, 공로패 수상자

학술상: 김용구 (공대 66) _ 뉴잉글랜드
참여상: 김창수 (약대 64) _ 뉴욕
봉사상: 김현영 (수의대 68) _ 필라델피아
사회기여상: 김호범 (상대 69) _ 시카고
참여상: 박영철 (농대 64) _ 뉴잉글랜드
공로상: 백옥자 (음대 71) _ 남가주
봉사상: 성기호 (약대 57) _ 뉴욕
공로상: 성주경 (공대 68) _ 남가주
참여상: 손재욱 (가정 77) _ 필라델피아
공로상: 이항렬 (법대 57) _ 캐롤라이나
사회기여상: 최수용 (상대 55) _ 뉴욕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 978-835-0100 | F 978-353-1882

www.snuua.org
email: general@snuua.org

제16대 (임기 2021. 7 ~ 2023. 6)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6대 동창회장 (임기 2021. 7 ~ 2023. 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손재욱 (제13대 회장)

연락처: 손재욱 직전회장 (267-736-2992) | 윤상래 회장 (978-835-0100) | 신응남 차기회장 (646-523-9606)

제16대 회장 (임기 2021. 7 ~ 2023. 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a. 2018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2019년 6월 혹은 7월: 전국평의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투표: 차차기회장 확정
-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제14대 집행부 1차 회기 결산

수입 · 지출 요약 as of May 15, 2018		
이월금 (제13대 2차년도)	\$47,347.11	
추가 이월금	6,872.09	
제14대 1차년도 수익	110,759.86	
이월금과 1차년도 수익금	164,979.06	
Investment	(36,000.00)	* 종신이사회비 일부 CD로 입금
1차년도 수익금 (5/15/18)	128,979.06	
Uncleared checks	10,531.36	
2차년도 선수입	100.00	* 2차년도 평의원회비
2차년도 선지출	(989.88)	* 2차년도 평의원회의 비용
현금 잔액 (5/15/18)	\$138,620.54	

수입 (July 1, 2017 - May 15, 2018)		
Donation		
Membership Fee	일반회비	\$72,325.50
Donation	후원금 (<=\$500)	22,670.00
Donation	후원금 (>\$500)	83,650.00
Permanent Membership	종신이사회비	42,000.00
Annual Board Meeting Fee	평의원회비	7,390.00
Donation Total	모금	\$228,035.50
Designated (Education)		
Scholarship	장학금	\$5,775.00
Brain Network Seminar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8,000.00
Fund for Alma Mater	모교발전기금	950.00
Designated (Education) Total	교육후원금	\$14,725.00
Designated (Charity)		
Sharing	나눔	\$3,025.00
Thousand by thousand	만만한 기부	4,700.00
Designated (Charity) Total	자선금	\$7,725.00
Supporting Fund		
Chapter - Local	지부분담금	\$12,100.00
SNUAA Korea	서울대 동창회 지원금	6,000.00
Supporting Fund Total		\$18,100.00
Advertisement		
Business Ad (small)	디자인 광고 (소)	\$4,560.00
Business Ad (large)	디자인 광고 (대)	19,240.00
Website Ad		500.00
Advertisement Total	광고후원금	\$24,300.00
Income total		292,885.50
Gross Profit	총수익금	\$292,885.50

종신이사회비 (July 1, 2017 - May 15, 2018)		
Beginning Balance		\$ 188,791.83
강신용 \$3,000.00	박영철 \$3,000.00	허지영 \$3,000.00
강영빈 \$3,000.00	이만택 \$3,000.00	
김경숙 \$3,000.00	이상강 \$3,000.00	
김문소 \$3,000.00	정선주 \$3,000.00	
김용현 \$3,000.00	주기록 \$3,000.00	
김정희 \$3,000.00	주종광 \$3,000.00	
박명근 \$3,000.00	차종완 \$3,000.00	
Grand Total		\$42,000.00
Future deposit*		\$(6,000.00)
Interest		\$677.42
Ending Balance		\$ 225,469.25

지출 (July 1, 2017 - May 15, 2018)		
Newspaper		
Printing	동창회보인쇄	\$15,207.38
Delivery	동창회보우송비	25,750.00
Editorial	편집부비용	43,603.33
Newspaper Total		\$84,560.71
Office		
Administrative Expenses	행정비용	\$12,161.12
Advertisement Collection Com.	광고수집비용	4,756.00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1,957.22
Travel	여행비용	5,196.49
Legal Fees	변호사비용	795.00
Postage and Delivery	기타 우편료	639.57
Staff Meeting Expense	직원미팅비용	1,423.74
Bank Charges	은행수수료	394.89
Office Total	사무비용	\$27,324.03
Support to Local Chapters	지부보조금	\$300.00
Support to SNUAA Korea	한국동창회지부금	\$11,000.00
Annual Conference		
Food	평의원회 음식	\$23,023.02
Transportation	평의원회 교통	2,496.98
Lecture	평의원회 강연료	3,227.00
Entertainment	평의원회 엔터테인먼트	1,143.06
Staff Help	평의원회 행사보조	2,096.00
Stationery	평의원회 사무용품	1,058.22
Annual Conference Total		\$33,044.28
Brain Network Seminar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Food	음식	\$1,417.08
Venue	강연장 대여료	1,400.00
Lecture	강연료	2,500.00
Transportation	연사 여행 경비	1,607.18
Brochure	인쇄	1,108.00
Ad	광고	200.00
Administrative Expenses	행정비용	186.77
Staff Meeting Expense	회의비	177.59
Brain Network Seminar Total		\$8,596.62
Charitable Donation	자선기부	
	만만한 기부	\$11,000.00
	장애인 돕기 자선 음악회 후원	500.00
	수재민 돕기 후원금	4,800.00
	탈북 난민 돕기 음악회 후원	1,000.00
Charitable Donation Total		\$17,300.00
Education		
Fund for Alma Mater Sent to SNU	모교발전기금 (기부함)	-
Education Total		\$ -
Expense Total	총지출금	182,125.64
	순수익금	\$110,759.86

모교 발전기금 (Fund for Alma Mater) (July 1, 2017 - May 15, 2018)		
Beginning Balance		\$ 188,791.83
심상은 \$25.00	유재환 \$125.00	정태광 \$100.00
오인환 \$200.00	윤우용 \$500.00	
Total		\$ 950.00
Future deposit*		\$(950.00)
Interest		\$ 488.56
Ending Balance		\$ 225,469.25

효당 이세영 님 서화집 발간, 민화문인화서예 등 70여점 실려



효당 이세영 님, 이준형 (공대 48) 명예회장

뉴욕지역 골든 클럽 명예회장 이준형 (공대 48) 동문의 부인인 효당 이세영(사진)님이 서화집을 발간했다.

효당님은 결혼과 동시에 교직생활을 접고 63년 세월을 시부모님과 자녀들을 돌보며 살림밖에 모르던 평범한 주부로 살다 팔순을 바라보는 뒤늦은 나이에 붓을 들었다.

뉴욕으로 이민온지 30년이 지난 77세의 세수에 뉴욕의 미주서화협회를 찾아 서화지도를 받았다. 미주서화협회장인 서예가 박원선, 사군자 대가 온봉예, 민화작가 송덕희 씨 등으로부터 작품지도를 받으며 서화가



로써 입자를 다져나갔다.

한국국제문화협회 주최 국제문화미술대전 특선, 한국문화예술연구회 주최 한국문화미술대전 특선 경력과 함께 아시아 미술초대전, 한인 서예명가전, 한중일 문화협력 미술제, 홍콩창조미술전 등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한국 한국국제문화협회 찬조작가, 한국문화예술연구회 추천작가를 역임했다. 서화집에는 연화도, 십장생도 화첩도, 모란도, 화조도, 어해도, 일월오봉도 등의 민화작품과 문인화, 서예 등 70여점이 실려 있다.

(출처: 뉴욕한국일보)

뉴욕지역 동창회

골든 클럽 봄 피크닉 겸 Pizza day



[기사: 윤현남 (공대 64)] 골든 클럽 봄 피크닉 겸 Pizza day가 6월 13일 Cresskill, NJ 소재 한태진 (의 58) 동문 자택에서 우천에도 불구하고 70명의 동문 내외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highlight는 물론 손대홍 (미 79) 동문이 직접 준비한 이탈리아 정통 피자였지만 이외에도 손 동문의 즉석 강의, 한 동문 내외와 준비팀에서 마련한 이탈리아인 식 식사, wine 및 음료 그리고 OMG Band의 우천 공연 등이 있었다.

겨우 골프 대회 두어 번 참석해 본 신참 회원인 내게는 이 pizza day가 생소했지만, 무척 인상적이었다. 받은 인상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우선 정통 이탈리아인 피자는 맛이 깔끔하고 간결하다는 것이다. 손 동문이 4종의 피자, 마게리타 (Margherita), 프로슈토 햄 (Pro-

sciutto), 양송이 (Funghi) 그리고 브로콜리와 이태리 소시지 (Broccoli e Salsiccia) 피자를 무려 36장이나 준비해 주었다. Base layer가 우선 좋고, 부드러웠고 바닥이 타지 않아서 좋은 bread를 먹는 것 같았다.

동에서 흔히 먹는 소위 사실리안 피자는 base layer가 두껍고, 바닥이 타고 따라서 씹는데 tough 한 기분을 주는 것과 많이 대조되었다. 도마도 소스를 적게 써서 치즈와 topping의 맛을 잘 음미할 수 있었다.

내게 pizza는 저녁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시켜 먹는 음식인데 손 동문의 pizza는 정식 dinner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비천한 음식의 고급화의 한 예가 정통 이탈리아인 pizza인 것 같다.

눈에 확연히 들어온 것 중 하나는 손 동문

메릴랜드대 최규용 교수 풀 앤 켄트 교육상 수상



‘풀 앤 켄트 교육상’을 받은 최규용 교수와 부인 최은량 씨.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파크 캠퍼스의 최규용 교수(화학·생명공학과, 사진)가 ‘풀 앤 켄트 교육상(Poole & Kent Teaching Award)’ 수상자에 선정됐다. 3일 메릴랜드 대학 발표에 의하면 최 교수는 1984년부터 이 대학에 34년째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면서 다양한 연구 업적과 학술발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 교수는 특히 폴리머 사이언스(Polmer Science)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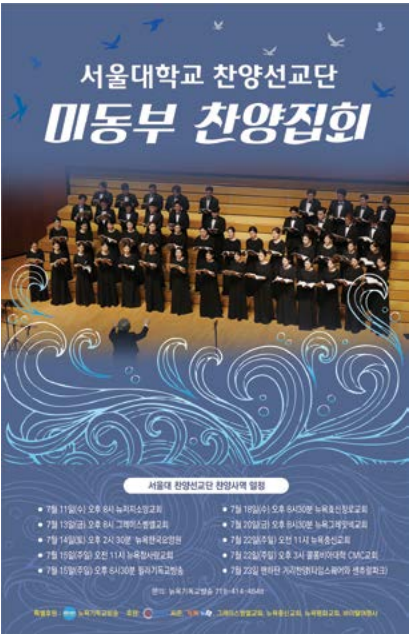
최 교수는 4일 “추천해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고맙다”면서 “평소에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동양적인 교육관을 미국 교육에 접목,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며 강의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지식의 양보다는 생각하는 법, 분석하는 법,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치며 무엇이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모교 공대 화공과와 동대학원을

거쳐 위스컨신대에서 화학학 박사학위 취득 후 2006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종신회원에 선출됐으며 고분자공학 분야 학술논문을 200여편 이상 발표했다. 메릴랜드 성김안드레아 성당 산하 한국학교 교장으로도 활동하며 한인 2세 교육에도 헌신하고 있으며 서예에도 조예가 깊다.

서울대 찬양선교단 미동부 공연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이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미동부 찬양집회를 진행하며, 예배와 집회에 초청을 원하는 교회/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718) 414-4848



개 여러 고참 선배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기회였던 것 같다. 이 큰 행사를 특히 야외 행사를 우천에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골든 클럽의 저력이고 특히 준비팀의 능력과 열정의 공이다. 사실 내게도 공대 동기인 홍종만 동문이 와서 좀 두 우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 적극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애스신 분들의 수고가 감사해서 본인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거머하여 치하 드린다.

손대홍 동문 부부 뿐만아니라 한태진 동문께서 자택 전부를 열어 주셨고, 훌륭한 wine 그리고 음료를 제공해 주셨다.



손대홍 (미대 79) 동문 부부

Pizza 외의 pasta와 salad의 준비와 음식 serving은 한태진 동문 사모님, 홍예경 회원 그리고 조승자 회원이 맡아 주셨다. 행사 기획과 logistics의 총책임은 홍종만 (공 64) 그리고 조달환 (사 66) 두 동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골든 클럽 안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존재한다. 손대홍 동문처럼 독특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른 멤버들에게 봉사도 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음은 골든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 능력이다. 열심히 궁리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곽상희 (문리 52)

7월 서신

선택취페리는 ‘이제 나는 정복의 길을 나선다. 나를 찾아 떠나는 이 길, 황금빛 오아시스가 있는 신비의 성을 향해 나아가리라. 이 여정에는어떠한 패배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 속에서 진리의 뿌리를 발견하고는 서로를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굳게 손을 잡는다:

자연을 사랑하다 자연의 깊음으로 사라져간 사막의 비행사, 진리와 외경으로 자연과 인간을 탐색한 순수 인간의 모델, 우리가 경애하는 정신을 남기고 간, 이 지상에 영원히 있다면 작가로서 영원한 순수로 남을 그 순수정신을 우리 흠모하겠지요.

7월, 7월도 어느 듯 꼭지점으로 줄달음치는 오늘이란 단어, 이 세상 무슨 일 일어나도 인간 사이 우정만은, 신뢰와 믿음만은 지키는 자유의 심상시대에 우리는 존재해야겠다는 신의 축복을 우러르며 창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햇빛과 바람 한 줄기 그것을 감사하며, 그러나 가지 각색바람과 맞붙어 투쟁하는 별거벗은 인간의 문명을 안타까이 때로는 놀라고 슬픔으로 보며.

여기 점 보다 작은 먼지 같은 인간의 존재가 벽차오르는 세계를 끌어안고 자연과 신의 운송에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순수자유를 구가하는 길이 아닌 가고 지금 잠시 생각을 모아 보게 되네요.

목표된 시인은 7월이란 시에서 <한 해의 허리가 접힌 채/돌아선 반환점예/ 무리 지어 핀 개망초//한 해의 궤도를 순환하는/레일에 깔린 절반의 날들/시간의 음소까지 조각난 눈물/장대비로 내린다//계절의 반도 접힌다//폭염 속으로 무성하게/피어난 잎새도 기울면/중년의 머리카락처럼/단풍 들겠지//무성한 잎새로도/견딜 수 없는 햇살/굵게 접힌 마음 한 자락/폭우 속으로 쓸려간다> 라고 한국적 서정이 물씬하도록 7월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기하면 조민희 시인은 같은 제목으로 <햇살 짜글거려/화드득 타는 배롱나무/타는 매미울음/타들어가는 벌고랑예/ 어머니/타는 속내가/늑음보다/더 질다> 고 사랑과 그리움의 시어로 세상의 아픔과 어둠을 녹이는 시인으로 알려진 그는 이 시에서도 잔잔하고 섬세한 시어로 한국적 서정시의 운율을 펴고 있네요.

이렇게 시인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가 사는 현실의 복잡다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오랜 벽화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순례자

같은 결단으로 시를 찾아가다 할까요. 현실과 그의 이상, 어느 시인은 아무런 기학적 공식도 없는 그 접점을 시인은 스스로 찾아내야한다는 말을 했지만 공식이 보이지 않는 접점, 거기 시인의 고민과 몸부림이 있겠지요

어느 아침, 저는 계란과 토스트로 아침을 때운 후 여정평한 심상으로 부엌 테이블 옆에서 서 있다가 떠오르는 글귀 하나 붙잡고 다음의 시를 적어보았어요, 편안하게.

할 일 없이 너무 바빠 서성이다가
시집 하나 붙잡고
빈 의자에 비스듬히 내려와
언젠가 온 듯한 심연의 바다 밑으로
걸어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긴 세상도 가뭇하다
시간의 계곡을 빠져 나와
선연하게 온 몸을 흔드는
산호초와 날개뿐인 물고기들

나부깸 자연도 여러 빛깔인 채
그들의 손짓 따라 내 속에 잠든
천년 세월, 꿈쩍없이 풀썩이며
살아나는 기억의 세포들이
지상의 어떤 이의 곡절한 손짓인 듯
분비되어 나를 당황케 한다

아무 음표는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생존의 현장을 톡톡, 새기고 있을
잠언 한 손, 토네이트의 시능으로 내게 오고 있다

소리 없는
이방의 차고도 비린 그리움이여
이방거리 어디서도 풀 수 없는
그대와의 매듭,
나란히 가는 이 길에는 다만
홀수의 바람 길
점, 점, 천천히 천천히 가는
누란羃卵의 존재의 색, 유별해...! (<아무 할 일이 없거나 바쁠 때> 곽상희)

어디서도 풀 수 없는 그대와의 매듭, 그러나 나란히 갈 수 밖에 없는 그러면서 홀로 일 수밖에 없는 생존과 실존의 인간...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느낌과 해설에 맡기고 싶네요. 그러나 여기서도 자연에 함몰되어 내면을 은유로 피우려하는 저의 시적 방법은 여전하고 형이상학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갈망,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그것을 축감으로 만지게 하는 것이 시인의 일이지만) 더욱 선연하게 표현하려는 자연적 순수 열망도 변함없다 할까요. 나의 발자국 한걸음 한걸음 “그곳”을 향해.... 행복하고 저런 걸음으로, 아류와 살롬을,

동문 문단



김태형 (의대 57)

일상 (日常)

걷다가 떠오르는 맑은 생각들
책읽다가 느끼는 先人들의 지혜

어쩌면 이렇게 기쁨을 주나?
어쩌면 이토록 감동을 주나?

오늘도 산책을 나선다
오늘도 책장을 펼친다

비는 향기로 빙빙 돌다가

곽상희

애초에 비는 허공에서는
하나의 몸이다가
땅으로 가까이 오자
천만개의 윤선(潤線)으로 흩어지고
몸 반듯 세워 흙의 몸 날날이 눈치 보며 살피다가
이윽고 흙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가네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아기처럼

팔뚝의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어
오오, 4월에는 흙의 고운 눈망을 되어
비는 향기로 빙빙 돌다가
다시 하늘로 가네

때로는 한번 더 한번 더 하며 바람과
나뭇가지들과 바위와 겨울 강의 단단한
얼음에 힘을 얻어
고즈넉이 탄식하며 소곤거리다가

온몸을 소리 없이 뒹굴며 뒹굴며

이 세상 가장 못나고 낮은 곳을 찾아
더욱 깊이 몸을 아래로 도사리고
무릎 딱 울곤 젖어들어

함께 즐거운 쌍곡선의 곡조를 타며 하늘로
하늘로 꽃안개 되어 올라가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35th Annual Medical
Convention

[기사: 허유선 편집위원]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회장 한승신 76)가 주최하는 제35차 북미주 서울의대 학술대회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뉴저지주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에서 열렸다. 미주 전역에서 참석한 서울의대 동문 110명과 한국에서 참석한 10명의 동문, 배우자 등 모두150명이 참석하였다.



신응남, 이태안, 임종식, 서윤석, 오인환 동문



윤상래 회장, 오인환 12대 회장, 신응남 차기회장



윤상래 회장 인사말

서울의대 북미주 선후배간의 화합과 젊은 세대의 성장 발전을 돕는 (Green produc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대회와 "Healthcare Disparity in Korean - American", "Career Choice in the US: Advice from Real- Life Experience" 등의 Panel Discussion이 있었다. 오후 session에는 CME, Non- CME의 구분을 갖고 같이 참석한 배우자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연이 있었다.

지난 몇해간 논의 되었던 Liver and Stomach Cancer in Korean - American population에 관한 강연에는 오인환 전 12대 미주동창회장이 invited panelist 로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한국에서 홍정용 서울의대 동창회장, 신찬수 의대 학장, 김종

일 부학장, 문형곤 국제협력 실장,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김연수 부원장, 윤강섭, 권용진, 양종현 교수가 참석하여 학술 발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미주 함춘 공로상 임종식 동문



미주 함춘 공로상 한기현 동문



미주 함춘 공로상 김성환 동문



서울대 의대 학장상 김원정 동문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젊은 세대의 동문들 (Green Project)이 참여하여 보여준 적극적인 연구발표는 우리 동창회의 앞날에 희망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현재 미주 의대 총동창회에는 1,15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고 근래에는 뜻밖에도 미국으로 이주하는 젊은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의료제도의 변화로 더 많은 동문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윤상래 님, 차기회장 신응남 님, 12대 회장 오인환 님이 함께 축하의 인사와 따뜻한 교류를 가졌다.



서윤석 (의대 62)

제35차 컨벤션에 다녀와서

1972년 (초대 회장 이광수 NYU 약리학 교수) 설립된 미주 의대 동창회는 1976년 11월부터 거의 해마다 학술대회를 열어왔다. 초창기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든든한 기금을 마련하고 China Medical Board와 연대하여 장학선발, 사회봉사,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한 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금년에도 46대 회장단인 한승신 교수의 주최로 제35회 Medical Science Convention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술대회의 중심 의제는 'New Horizon in Medicine' 중에서도 Regenerative Medicine' 으로 계획하여 대성공을 거두면서 행사를 마쳤다. 국내외로 190여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하였고 서울에서 홍정용 의대 총동창회장, 신찬수 의대학장,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과 김연수 부병원장, 강사로 참석한 여러분의 교수진들이 서울에서 참여했다. 한국의 의학발전을 미국에 소개했으며 많은 미주 동문들과 허심탄회하게 그 장단점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젊은 세대의 동문들 (Green Project)이 참여하여 보여준 적극적인 연구발표는 우리 동창회의 앞날에 희망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현재 미주 의대 총동창회에는 1,15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고 근래에는 뜻밖에도 미국으로 이주하는 젊은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의료제도의 변화로 더 많은 동문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윤상래 님, 차기회장 신응남 님, 12대 회장 오인환 님이 함께 축하의 인사와 따뜻한 교류를 가졌다.

와 여흥, 퀴즈게임 등과 동문 선후배의 듀엣 가요제 등으로 뛰어난 인재들의 숨은 장기를 유감없이 과시할 기회가 있었다.

23일 토요일 저녁 만찬에서는 시상식이 있었다. 2018 년 미주 함춘공로상 수상자는 임종식 (57), 한기현 (63), 김성환 (71), 서울대의대 학장상은 김원정 (75) 동문이 수상하였고,

신찬수 학장이 드리는 제4차 행사에서 금년에는 임종식(51), 한기현(57), 김성환(65) 세 분에게 미주함춘공로상이 그리고 김원정(69)에게 학장상 수상식이 있었다. 한승신 회장이 드리는 멘토상에 김의신(58), 그리고 신규호 교수(62), 이간일(62) 미주서울의대총동창회 회장, 김영애(김성환 부인)수필가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친선 골프대회,FDR Home, Library and Museum & Vanderbilt Mansion, Korean Community Center 방문, New York City Tour가 있었으며 이튿에 걸쳐 Banquet에서 장기대회, Line Dance가 있었으며 동문들이 출간한 저서의 판매가 있었다.문학계와 의학계에 알려진 동문들, 임종식(51임학) 자서전, 한혜원(55) 오페라 전문가, 한수용(55) 수필가, 강창욱(55) 영문소설가, 서윤석의 시집과 수필집, 천재적인 이원택 (65) 미주사인협회 회장의 서적들, 김영애 수필가의 주옥같은 서적들이 동창회 기금을 위하여 판매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그중 미주한인들이 당면한 불공평한 Stomach Cancer(위암)의 문제점을 박찬형(56) 동문이 제시하여 오인환(Leadership and Group IQ Institute), 한혜원, 임종식, 한승신, 한수용 등 여러 연사들이 함께 그 대책을 의논했다. 매년 EGD(상부소화기내시경)을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현 보험정책으로는 동양인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명되었다.

한편 평생 한혜원 (55) 교수가 치료와 연구에 몰두한 수십명의 연구가 해당되는 Asia Population에 많은 Hepatitis B 감염에 대한 Hepatitis B vaccine 과 다른 간염, 간암들의 치료 예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꾸준한 연구의 덕분으로 젊은 한국사람들은 이제는 H-B 는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아 희망적이지만 중년 이후의 미주에 거주하는 수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전염성이 있는 보건자이라는 놀라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 감염자들은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간경화증과 간암으로 진행된다.

>>> 계속

지난해 회장단인 이성근 (66), 백승원 (79) 동문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내년도 차기 회장인 정균희 (72, LA) 동문은 내년 3 월 22 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릴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참석한 동문들에게 부탁하였다.



정태영 (문리 71)

미국 독립기념일의 역사적 의의

미국 건국 정신

“독단 버리고, 오픈 마인드

실험주의 정신 추구”

‘민주적 전제정치’로 가는길 막는 것은 오직 ‘자유에 뿌리를 둔 사회’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지 24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상념했던 이상은 아직도 유효하다. 자유에 바탕한 나라’ 그것이였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가 신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때 특별히 주목한 것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로 이어지는 계몽사조(사회적 계약론)이었다. 홉스나 로크나 모두 당시 지배체제의 근간이었던 왕의 권리가 ‘신이 내려준 것(왕권신수설)’이 아니라 인민들이 준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른바 계약론이다. 당시 이러한 사상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홉스는 역작 ‘리바이던’ 을 쓰고도 왕따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① 로크도 왕이 폭군이면 인민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시민정부론’을 이름을 감추고 썼고 한참 동안 출판조차 할 수가 없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목표한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 ‘절대적으로 확립된 신조(僞條) 같은 것이 없는 나라였다. 당시 유럽은 도그마티즘 즉 독단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신의 굳은 신념하에 쌓아올린 체제에서 물려받은 줄을 몰랐다.

그러나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그러한 도그마를 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정신과 자연법의 율타리에서 벗어나 실험주의 정신이 충만한 오픈 마인드 정신을 견지했다. 이렇게 탄생한 미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의심없이 세계에서 첫번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에 의해 건설된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인종과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지리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성, 경제적으로 계층 사다리의 개방과 기회 제공, 자유로

운 이동성 등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 모든 인민들은 계층간의 이동성을 굳게 믿었다. 미국은 이렇게 성공한 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미국을 분석하거나 연구할 때 비껴갈 수 없는 인물이 알렉시 드 토크빌이다. 2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저작은 정치학자나 역사



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system)의 관점이 아니라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점에서 당시대의 다른 연구자들과 달랐다. 그는 민주주의가 신대륙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래의 민주주의’ 향방을 분석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민주적 전제정치(Democratic despotism)’이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을 평등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평등이 진전됨에 따라 모든 권력은 중앙에 집중된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1인 통치자는 사상 전례없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가 말하는 ‘민주적 전제정치(Democratic despotism)’ 가 된다.

GP 강사진의 Program에서는 Yale 대학의 호홉기내과 강민중 교수의 ‘담배흡연과 Mitochondrial Damage, COPD, Ageing’ 연구를 비롯하여 남명호, 오무연, 박종철, 남영제, 서귀숙, 손경민, 이준규등 뛰어난 명문대학의 강사진들이 열렬한 학문적 발표가 있었다.

Non CME 강의실에서는 은퇴한 동문이나 같이 참여한 배우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강좌에는 서울대에서 인문학을 연구한 최도빈 교수가 1776년 후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시작으로, 철학에서 떨어지거나 경제학의 발전, Adam Smith의 국부론, 산업 혁명,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왕정에서 벗어나는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강좌가 있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시인 수필가인 이원택의 “의사들의 외도”, 김영애 수필가의 “수필이란 무엇인가”, 한혜원 동문의 “오페라 감상”, 서정훈 님의 “상속법 소개”, 서성환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중앙집중화되는 과정을 토크빌은 그의 저작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대한 민주혁명이 일어난 초창기에 계급들 사이에 전쟁이 막 벌어졌을 때, 인민은 현저 업무의 통할권을 귀족계급으로부터 빼앗아 내기 위해서 공공행정을 중앙정부의 수중에 집중시키려 애를 쓴다. 이와 반대로 혁명이 끝나갈 무렵에는 일반적으로 패배한 귀족계급이 모든 업무의 통할권을 국가에 맡기려 애쓴다. 왜냐하면 귀족계급은 자신과 동급이 되고, 심지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려드는 인민이 조금이라도 폭정을 일삼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제2권 제4부 4장)

그는 “아메리카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아메리카와 같은 민주적인 사회 상태는 전제정치가

의 혁명 희망이 비껴갔다.

토크빌은 미국 사회는 영국의 자율 및 자치, 자유 정신을 이어받아 개인 및 하부 단계에 자유와 자치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당시 아메리카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아메리카에서는 ‘민주적 전제정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는 아메리카에는 ‘자유진보적이지만 혁명적은 아닌 집단 (liberal but not revolutionary party)’ 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한국에 눈이 돌아간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잠재하던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노조 운동을 시작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후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토크빌의 분석틀을 한국에 적용하여 보면 한국은 현대판 ‘민주적 전제정치’에 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토크빌이 지적한 (서구식) 자유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

“권력은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조여간다” 는 말이 떠오른다.

***주 ①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기적인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이기심과 충돌한다. 홉스는 이러한 상황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각자는 타인의 이기심과 자기의 이기심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을 지켜지지 않으면 한날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칼을 갖지 않은 계약은 단지 말에 불과하다.(리바이던 제17장)”고 했다. 그리고 계약을 강제시켜줄 존재로 국가를 상정했다. 그는 국가를 성령 용기에 나오는 거대하고 전능한 집승인 ‘리바이던’에 비유했다. 그리고 이를 지켜줄 존재로 군주제를 옹호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문제였다. 이전의 왕권신수설을 강고히 무시하고 왕권의 정당성이 인민의 계약에서 출발한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왕당파의 비판을 샀다. 홉스의 논리는 군주제가 의논하고 있는 총성과 경의, 정서 등을 모두 약화시키는 철저한 용해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로부터 위험인물로 낙인찍혔다. 또한 그는 당시 왕당파와 대결중인 의회주의자들로부터도 배척당했다. 그의 저작 목적이 왕당파를 옹호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적대적인 두 세력 모두에게 왕따 당한 이유이다.

결국 중국에 그의 저서는 출판금지가 되었다.

<논설위원>

공학박사의 “스미트폰 사용법”, 최광휘 성형외과 전문의의 “Ageing Face 성형에 대한 강의”, 작년에 이어 Joshua Grayson 음악박사의 “George Gershwin's music & New York City”라는 제목의 연주와 소개가 있었다.

모든 강의가 매우 흥미로웠으나 그중에서도 역사에 조예가 깊은 온기철(65)동문이 발표한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서재필” 이야기는 많은 청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아직도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민족은 미국과 북한의 회담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정치적인 변화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평화를 갈망하지 않나 그대도 우려가 앞선다. 온기철 동문이 이날 보여준 1860년부터 1960까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던 괴롭고 참피스러운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는 말아야하는데...

청년시에 무과에 급제한 서재필 박사는 대부분의 개화파와 같이 종로구 화동(경기도

동학교 자리)언덕에 살다가 김옥균과 같이 갑신정변에 무관책임자로 가담했다. 그러나 3일전하로 그정변이 실패하여 삼척의 멸함을 받았으나(노비가 없어서 탈출시킨 동생의 아들만 생존), 그는 자객들을 피해서 서광범과 같이 일본을 거쳐 San Francisco로 왔다. 남들과 달리 투지력이 강하여 막노동도 감수하며 살아 남았다. 그 후 미국에서 최초의 시민권자, 한인 의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10여년 후 정권의 변화로 고종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미국시민으로 안경을 쓰고 머리를 숙이지않고 고종 황제 앞에 나타나기도 했으며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등 개최에 앞장을 섰던 선각자였다.

미국 우체국장의 마부로 일을 하다가 그 집의 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어 두 딸을 두었으며 해방 후 하지 중장이 시작한

(안재홍 군정청 장관)군정청에서 독립된 조국을 위하여 일했다. 그는 독립운동에 평생을 보냈으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사상이 기본이 되는 계몽운동을 우리 민족에게 보급하려고 노력하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워싱턴DC의 한국총영사관 정문 앞 동상 참고) 이 점에 대하여서는 곧 따로 온기철 동문의 기고가 예상된다.

이처럼 내용이 다양하고 학술적으로도 가치 있는 모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한 한승신 회장단(부인 동문 김정아(70) 부회장)를 비롯하여 유영걸(70 임학) Convention Chair님, 남명호(75) Scientific Chair님, 남영제(88) 교수님, 신우호(62) 교수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 제36차 행사는 정균희(66임학) 신임회장단에 의하여 2019년 3월 21일부터 Pacific Palm, LA, California (2017년 3월과 같은 장소)에서 열릴 것이다.

하기환 (공대 66) 박사 인터뷰

술선 수범의 봉사로 LA. 한인사회와 서울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

1. 미국에 오신 이유

1970년 유학생으로 University of Wisconsin 전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유학생 시험을 통과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 습니다. Wisconsin 대학에서 MS. Degree를 받고 73년에 UCLA 로 와서 Ph. D. Degree를 77년에 받았습니다.

2. 유학시절의 어려웠던 점과 기억에 남는 추억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 어려움이겠쥬. 학교에서 Research Assistant 로 일하면서 300 불 정도 받아 근근이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Gas 값이 Gallon 당 294 였쥬. 일주일에 \$20 이상은 식비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학교 에서 주는 텃밭이 있었는데 농과대학 출신 은 배추, 무를 심어 김장까지 하는데 우리는 (나와 Wife) 잘 자라는 껌잎만 심어 먹었 쥬. UCLA 에 와서는 아기도 생기고 Teaching Assistant 로 일하고 Wife가 부업을 하며 근 근히 살았습니다. UCLA Married Apt 가 405 Freeway 바로 옆에 있어서 정신병 걸릴 정도 로 소음과 싸움을 했습니다. 낮에도 소음을 막으려고 창문에 담요를 쳐놓아 밤처럼 캄캄하게 살았쥬. 지금은 방음이 잘된 새 건물 이 생겼더군요.

3. LA.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일들과 성취된 일들

1992년 4.29 LA 폭동 때 제가 상공회의소 회 장을 맡아 있었고 또 그 당시 한인회장이 부 재중이라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했습 니다. 총까지 차고 다니면서 한인타운 수비 에 앞장섰습니다. 폭동 후, 성금으로 걷은 기 금 문제로 타운이 서로 싸우고 반목이 커져 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4년 간 한인회장 하면서 제일 추억에 남는 일은 World Cup 응원쥬요. 그 당시 한인타운 지 역 시의원원이었던 Nate Holden 씨와 협상하 여 그 때 새로 지은 경기장 Staple Center 를 1달러에 빌려서 열렬한 단체응원을 펼쳤습 니다. 2만 명이 새벽에 모였쥬. 그 이벤트가 비로소 한인회가 미주류 사회에서 인정받 는 한인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있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 Dr. 하기환 회장님은 한미 정계 인사들과 친밀한 유대로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Doctor Kee Whan Ha Square 의 보상 및 한인상 공회의소 2번의 재임과 LA. 한인회장 2번을 하신 그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싶드.

4. 삶의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

하루하루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또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서도 일 년 에 1/3 정도는 여행을 하며 머리를 식히고 산 인생 공부를 많이합니다. 나이 70이 됐 지만 아직 Retire 는 생각해보지 않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하고 있는 Business 와 기회가 주어지는 한 Town 봉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하기환 (공대 66)

단단한 예쁜 차들을 연상케 하는 하기 환(공대 66) 박사님은 LA. 한인 커뮤니티

티를 이끌어 오신 비즈니스에 성공한 재력가로 우리 동문인 것이 자랑스럽 다. 누구나 바라고 이민 오는 아메리칸 드림을 하기한 박사님은 여러 번의 시 행착오를 견디며, 닥터이신 아버님의 엄한 교육에서 그 곤곤한 의리를 모토 로 K마크라는 엘리트의 자만심에서 벗어나 명석함과 폭넓은 인간 관계로 자 기의 보람된 삶을 이루었다. 몇 년간의 인터뷰 사양에서 이번에 허락된 인터뷰 질문에 “어휴 너무 어렵다” 하실 때 정 말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낸 마음의 거인 이 하시는 말씀에 순수함이 엿보인다.

글: 조직국장 백옥자

5. 비즈니스 성공담

1970년 말에 UCLA 에서 Ph. D 받고 한국으 로 돌아가려고 서울 공대 교수직까지 확보 했는데 Hughes Aircraft 회사에서 Job Offer 가 오는 바람에 미국에서 경험을 좀 쌓고 한



Wilshire Blvd.와 Vermont 에 위치한 Doctor Kee Whan Ha Square (Dr. 하기환 회장님 헌판식 밑에 서 가족들과 함께)

국으로 갈려고 Hughes Aircraft 에 입사했습 니다. 막상 입사해서 일을 해 보니 그 회사에 서 처음 시작된 Project 라 안 맞았습니다. 그 런데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동료가 얘기가 됐습니다. 흥미롭더라고요. 집에서 회사 그만두고 부동산하면 어떻 까하고 Wife 한테 얘기했더니 Wife가 팔쩍 뛰었어요. 고생고생해서 Ph. D 까지 따 놓고 부동산이나구요. 그런데 몇 일후 Wife가 사 람이 한번 사는 세상인데 하고 싶은 일하고 사는데 맞는것 같다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 다. 부동산업이 안 맞으면 다시 회사로 갈 수 있도록 회사에 Leave of Absence 6개월을 받 고 Business 파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이민 붐이 불어 미국 에 와서 Business 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 아서 Business 를 많이 팔았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한인 타운에 있는 집을 사기 시작 했습니다. 그 후 부동산 사무실을 열고 부동 산, 건축사업을 하며 운이 좋아 많은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92년 폭동으로 부동산 경 기 하락, 지하철공사 등으로 Wilshire 가의 고 층 오피스 건물 및 아파트 등, 그 동안 이루 어 놓은 것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 나 88년에 우연히 시작한 한남체인이 있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한 한남체인이 그 후 주요 Business 로 성장하여

다시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동산이 공개 자료만으로 평가해도 1억 달러가 넘을 정도라고 평한다. 400만 불에 매입한 월서 갤러리아가 5천만 달러 매각, 6가와 알렉산드리아 체프만 프라



Dr. 하기환 회장 상공회의소 재임 사진

자, 라스베가스 골프장 외 20여 곳의 부동산 재벌이 되신 것은 이민 초기의 Mrs. 하의 타 파웨어를 들고 남의 대문을 두드린 눈물어 린 고생스러운 숨은 내조의 덕분이 아닐까?

6. 가족관계 (아내를 만난 사연/ 자녀근황)

67년에 서울 공대와 이대 불문과 미팅에서 만나 5년이나 Date 하다가 71년에 미국 Wisconsin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100 들었습니다. 피검사(그 당시 결혼하려면 피 검사부터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비, 케익 등 친구한테 사진을 부탁했는데 잘못해서 우 리는 결혼 사진이 없습니다. 딸 둘을 두었어 요. 모두 결혼하고 또 손녀딸만 3명 있습니 다. 큰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얘기 두 명 낳 은 후 그만두고 지금은 Bank of Hope에 이 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7.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

동문들의 열성으로 신문, 피크닉 등 많은 Event 를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문간의 친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수 고하시는 여러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8. 서울대 후배동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사회의 고정관념에 이끌리지 말고 자기 적 성에 맞는 일을 찾아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십 시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 집니다. 서울대 나 오면 모든 사람들이 Elite 로 보고 대우해 줍 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보면 서울대 보다 인간적이고 본인 학생을 감수하고 남을 도 우면서 회사 일을 키워 나가는 것을 봅니다. 대학 들어 갈 때 최고의 학교에 들어 간 것 에 대한 자부심이 대학 졸업 후 그 자부심 때 문에 주변의 동료 및 경쟁 위치에 있는 직원 들과 화합을 못하고 도움을 못 받고 외톨이 가 되어 서울대생으로 기대하는 성취를 못 하는 것을 봅니다. 서울대라는 울타리를 벗 어나서 더 폭 넓은 교류와 인간적인 삶을 영 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명언이 있다면

특별한 명언은 없고 제가 가장 중요 시 여기는 것은 의리가 있는 사람을 아주 중요 시 합니다. 본인이 손해가 나는 것을 알고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의리가 있는 사람들과 만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항상 많은 부탁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힘들지만 거절을 할 것은 하고 일단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10. 바람직한 미주 한인사회의 미래상은

1세대와 15세대 2세대가 모두 아울러서 멋 있는 한인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바랍니다. 최근에 벌어진 Homeless Shelter에서 보여준 편협성을 보면서 우리가 민족으로 미국사 회에서 성공은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인 간적으로 우린만 편하고 잘살고 주변의 타 민족 및 소외된 계층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 에 반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인 사회에서 교계를 중심으로 엘리트 다운타 운 Homeless에 사랑의 점퍼, 담요, 텐트 등 무수한 도움의 손길을 준 한인이 막상 자기 들 주변에 Homeless Shelter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광적인 반대 운동 등 주류사회 및 타 민족이 보는 한인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반 응에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65명 수용하는 Shelter 반대를 위해 15,000불씩 드려서 LA Times 전면광고 등 과격한 반대는 한인사회 가 Nimby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 매김을 할 때 앞으로 제2의 폭동이 혹시라도 나게 되면 주변의 타민족 및 주류사회에서 당연 히 받아야 할 Protection을 못 받고 92년도 폭 동처럼 한인사회만 Target이 되어 큰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지요.



70's Birthday Party 사진이 마냥 행복함에 우리 도 마음이 축축해진다.

제2회 (2018-2019 학년도) 장학생 발표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



강에드 (사대 60)

뉴욕지역 동창회 제32대 회장을 역임한 에 드워드강 (사대 60) 동문이 설립한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에서는 제2 회 (2018-2019 학년도) 장학생을 다음과 같 이 발표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각각 장학금 \$5,000 이 수여된다.

- 1. Cho, Daniel (Brown)
- 2. Choi, Joseph (Cornell)
- 3. Han, Angela (Columbia)
- 4. Im, Hasol (NYIT)
- 5. Juilliard Pre-College (TBA by school)
- 6. Jung, Harim (Upenn)

기에 단결심이 강하게 나타났다. 인종 우월 성을 강조하며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히틀러 의 독일은 외교적으로 강한 동맹국을 Recruit 못하였으며 소련도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 에 불량국가로 고립되었다. 이런 역사적 고 찰을 볼 때, 현재 NATO와 한국, 일본 동맹국 들을 경제적 부담으로 비난하는 트럼프 대 통령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평화 와 질서를 위해서는 돈과 무기보다 더 중요 한 이상(Ideal)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된다. 2차대전 때 패대한 명 성(Reputation)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이 미국을 신뢰하게 된 것이 미국을 강대국 으로 만들었다. 물론, 미국도 인종차별, 빈부 격차, 사회폭력 등으로 이상적인 평화스러운 원칙을 따르는 사회를 완성하지는 못하였으 나 소련, 중국 이외 많은 독재국가에 비하면 월등히 낫다.

6월 중순에 New York에 회의 참석차 십여 년 만에 4번째로 Ellis Island와 Statue of Liberty를 방문하였다. 아직도 반이민주의가 판치고 트 럼프 대통령은 Zero Tolerance 이민정책으로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생명의 안 전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 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소위 Sylum Seeker들 을 체포하여 그 아이들을 뿔뿔이 따로 격리 수용시키는 마당에 뉴욕 항구 앞바다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였다. 특히 배고프고 불쌍한 이 민자가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식들을 위한 좋 은 미래의 인생을 찾아오는 이 불쌍한 인간 들을 위한 햇불을 들고 맞아주는 자유의 여 신상, 57년 전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뉴욕 으로 유학왔던 생각이 나 눈물이 글썽거려 진다. 이것이 미국이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 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박해를 받아 미국 으로 왔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이 나라 발전

에 동참하였다.

미국의 상징은 Empire State Building, Holly-wood, Disney Land, World Trade Center가 아니 라 자유의 여신상이다. 여신상 이외에 미국 을 상징하는 감명 깊은 동상이 있는데, 그것 은 Washington D.C에 있는 Lincoln 대통령의 동상이다. 그 인자하며 겸허한 모습, Lincoln Memorial 벽에는 남북전쟁 때의 그 유명한 연설문 한 구절이 새겨있다. “정부는 국민이 만들었으며,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하여서 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Government by the People, Government of the People & Govern-ment for the People”

링컨 대통령 말씀대로 미국 정부는 공화당 이나 민주당의 정부도 아니며 특히 삼권분 립의 미국에서 정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 고 대통령 권한이나 부 축적의 기관이 되어 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며 좋은 심부름꾼의 역할을 할 때,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은 기회가 있으면 많은 독자도 자유의 여신상, Lincoln Memorial, Jef-ferson Memorial, Mount Rushmore 등을 방문 하시고 감명받기 바라며, Washington D.C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Arlington Korean War Memorial 묘지를 방문하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에 몸을 바쳤던 장병 묘지를 방 문하면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베트남 전 쟁, 한국 전쟁 기념비 근처에 한 문장이 벽에 새겨졌는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우리 의 눈길을 끈다. 순국한 장병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전 셰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한국정치학회 회장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우지는 동창회!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국의 힘과 권위

죄를 증가, 약을 남용, 무역 적자 등을 제시 하고 있다.

두사람의 상반되는 설이 모두 어떤 면에서는 옳은 점이 있으나 냉정하게 관찰할 때, 미국 의 영향력이 60년대초부터 점차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이다. 2차대전 직후, 미국의 경제 생 산력은 전세계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 하였으나 지금은 20%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 므로 많은 미국인은 미국의 장래에 대해 우 려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정 치를 음모설로 해석하여 경제에 더불어 퇴 폐적으로 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며 ‘공포 우 려설(fear mongering)’ 전략으로 미국 사회를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미국은 쇠퇴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수적인 정책을 써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물락설의 가 정 아래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과 무역전쟁 을 벌이고 있으며 한 예로 최근에 캐나다에 서 열렸던 G7 회담에서도 그는 동맹국들에 관세를 통보하고 고립된 존재로 성과를 거 두지 못하였다. 현재 트럼프는 70년간 동맹 국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의 지도자들 을 냉대하고 오히려 러시아, 북한, 중국 독재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을 보인다. 많은 진보적인 미국 학자들은 이 런 이율배반적인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힘 과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토의는 벌써 베트남 전쟁 후, 60년대부 터 토의되고 있었으며 보수파 사무엘 헌팅 턴(Samuel Huntington) 같은 학자는 미국 물 락설을 부정하고 있다. 그의 학설에 의하면 미국은 다시 재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아 직도 전 세계 경제 생산력의 20%를 생산하 고 있으며 제일 으뜸가는 경제로 국가생산 (GDP)이 \$19 trillion 이며 중국은 \$16 trillion 이나 개인소득(per Capita)으로 보면 미국이 \$54,800이며 경제규모는 크나 중국은 개인소 득이 \$12,900 정도이다. 그다음으로 인도는 \$9 trillion, 일본 \$5 trillion, 독일이 \$4 trillion이라 는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이 월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 년 국방예산을 보면 미 국 \$610 Billion, 중국 \$228 Billion, 러시아 \$66 Billion, 일본 \$47 Billion, 한국 \$35 Billion 이라고 비교 통계를 볼 수 있다. 무기 보유 데이터에 서도 미국이 해군과 공군에서 월등하여 항공 모함은 미국 10척, 중국 1척, 러시아 2척, 인도 2척으로 통계가 나왔다. 러시아는 경제면에서 총생산력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정도 이 나 핵폭탄을 8,500기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두 번째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 금 당장 미 해군이 10여 척의 항공모함을 포 함한 300여 척의 미 함정들이 세계 방방곡곡 에서 정찰하고 있다.

이런 월등한 “미국의 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의 학자로서는 전 Yale 대학의 교수로 있 었던 Paul Kennedy 교수도 그의 베스트셀러 “미국의 흥망성쇠”에서 미국은 점차 쇠퇴하 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지적 한 대로 미국의 도덕성 하락, 막대한 부채, 범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독재 정부에 비하여 국민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정부는 전쟁위

화보로 보는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오테요, 오봉완, 김명자 동문



홍선례, 노명호, 오홍조, 배규영, 오명순 동문



김용구, 윤상래 회장, 홍혜래(조홍진), 이상민, 이나래 동문



김제성, 조진행, 배지선 동문



이영인, 신용남 차기회장, 오인환, 이정수, 유시영, 장수인, 정태영 동문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 인사말



허유선, 손재욱, 이성숙 동문



샌디에고로 이사하는 황보민영 동문에게 감사패 전달



김정수, 윤상래 회장, 오홍조 동문



허지영, 주중광 동문



14대 임원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배지선, 박영철, 정선주, 이영인, 황보민영, 이정수, 김원영, 이상문, 허유선, 백옥자, 황선희, 김제성, 정태영, 김용구, 홍선례, 장수인, 김문수, 이강원, 신용남 차기회장, 윤상래 회장, 김은한, 정정욱, 고일석 동문



지역 회장단.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최경선, 이상운, 안선미, 주지영, 강신용, 오명순, 홍혜래, 윤상래 회장, 이대영, 박영철, 유시영 동문

평의원회의 이모저모

[기사: 정태영 편집위원, 문리 71]

이번 평의원회의 참가자중 가장 선배는 이 용락(공대 48) 전 미주동창회 회장이었다. 멀리 시카고에서 참가한 이 전 회장은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년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여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평의원회의에 지난 20년 이상을 매년 참가한다고 했다. 후배 평의원들은 이 전 회장처럼 다른 시니어 선배 회원들이 - 특히 40학번대와 50학번대 - 건강이 허용되는 한 많이 참석하여 후배들과 다정다감한 유대감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다.

김정수(문리 69, 시카고) 동문은 평의원회의의 내내 소수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거의 모든 안건의 표결에 유일하게 반대 1표의 손을 들어 회의장에 웃음을 선사했다. 나중에 한 동문이 "민주주의는 만장일치가 아니지요. 만장일치는 공산사회에서만 있는 일이지요. 1표의 반대여권을 던짐으로써 우리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민주주의임을 후세의 사가가 평가할 것입니다" 라

고 김 동문의 반대에 존중을 표했다.

평의원회의의 두번째날 각종 보고 및 안건 토의 시간에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관계자 동문의 재단 운영 및 활동 상황 등의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미주재단의 보고에 일부 평의원이 "이 자리에서 미주재단 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이의를 제기하자 논쟁이 시작되었다. 과열된 토의가 계속 진행될 조짐을 보이자 고병은(문리 55, 필라델피아) 동문이 손을 번쩍 들고 "이제 논의는 그만.. 이것으로 끝내자" 고 으름장을 놓아 좀 거북한 토론의 연장으로 이어질 뻔 했던 상황이 마무리되어 대선투표의 기개를 과시했다.

서울대 국악팀의 국악공연에서는 미주동창회 문화국장을 맡고 있는 홍선례 동문(음대 70)이 작곡한 곡이 공연팀에 의해 연주되어 눈길을 끌고 큰 호응을 받았다. 작곡가로서의 홍 동문의 실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음악학 사회도 홍선례 동문이 많았다. 준비한 화면이 구물대며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파워포인트가 술 먹었나 봐요." 하는 등 익살스럽게 진행하여 분위기를 돋우었다.

평의원회의에서 수여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를 위해 미 전역 8명의 심사위원에게 보내는 신청 서류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윤상래 회장은 시니어들이 대부분인 심사위원을 배려하여 전자문서 송부 방법을 지양하고 좀 힘들지만 옛날 방식으로 종이 문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몇몇 임원이 윤상래 회장 부부와 함께 동창회 사무실에 모여 하루 종일 봉투와 서류와 씨름을 하였다. 13명의 장학금 신청자들이 보낸 지원 서류를 일일이 복사하여 8명의 심사위원에게 봉투에 넣어 개별 우송하였다. 신청 서류가 많아 복사하는 페이지만 거의 1,000장이 넘었다.

15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 규모치곤 이것저것 준비 업무량이 많았다. 동문들이 미주지역에서 참가하고 한국에서도 축하 동문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홀함도 없이 하려는 배려에서였다.

동창회 임원들은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심정으로 많은 시간을 동창회 일에 쏟았다. 평의원회의에서 배부한 기념품은 한국에서 직접 주문제작해 공수해 왔다. 300여명이 넘는 기부 동문들에게는 세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

도록 기부 내역서를 일일이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우송하였다. 대외 홍보 활동도 만전을 기해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 DC, 보스턴 등 주요 지역 각종 한인 일간 신문 등에 서울대 평의원회의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안내를 맡은 임원은 한국에서 방문한 서울대 국악팀의 환영과 환송을 위해 새벽 4시에 공항에 나가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뭐니 뭐니 해도 이번 평의원회의의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동문은 윤상래(수의 61) 동창회장 부부이었다. 윤 회장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전력을 다해 이 행사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윤상래 회장 부부는 일찌감치 6월 13일(수)부터 6월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회의장소인 호텔에서 내내 숙박하면서 풀타임으로 전력을 다해 평의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었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 평의원회의의 대미도 윤상래 회장 부부가 장식했다. 6월 18일 월요일 마지막 떠나는 평의원들을 일일이 공항에 서들 기사가 되어 수차례 오가며 모두에게 안락한 교통편을 제공해주고 환송해 주었다.

화보로 보는 제27차 미주 평의원 회의



워싱턴 DC 지부, 한국 방문단.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Mrs. 민경업, 손재욱, 윤상래 회장, 박경일, 오병열, 김경태, 김인중, ?, 이효원, 최병갑, 안선미, 권기현, 오인환, Mrs. 오인환, 민경업, 김태일 동문



뉴욕주 지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인중, 강신용, 백옥자, 성주경, Mrs. 박중수, Mrs. 김진형, 김진형, 박중수, 오홍조, 이채진, Mrs. 이채진, 노명호, 홍선례 동문



뉴욕지부, 김원영, 이희만, 신용남 차기회장, 이진규, Mrs. 이진규, 이대영, Mrs. 이대영, 허유선 동문



필라델피아 지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고병은, 조화연, 황선희, 신용남 차기회장, 김현영, 지홍민, Mrs. 지홍민, Mrs. 김현영, 이상운, 윤상래 회장, 손재욱, Mrs. 조정현, 조정현 동문



캐터피터 지부, 서갑식, 손재욱, 윤상래 회장, 유시영, Mrs. 유시영, 박용애, 신용남 차기회장, 이희만 동문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



시카고, 미네소타, 하트랜드 지부, 이나래, 이상민, 홍혜래, 한경진, 한재은, Mrs. 한재은, 배규영, 박경일, 김정수, 오테요, 김명자, 이용락, Mrs. 이용락, 오명순, 오봉완, Mrs. 송창원, 송창원 동문



이영인 (사대 74)

평의원회의의 배우자 프로그램
2018년 6월 16일 (토)

[기사: 이영인 편집위원/홍보국장, 사대 74]
배우자 프로그램은 인근 쇼펄몰과 하바드 박물관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하바드팀은 이진희(수의 87) 동문이 운전의 수고를 맡고, 이정수(공대 71) 동문이 안내를 맡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 직전 일부 참가자가 하바드 박물관보다는 다른 곳을 가고 싶다고 하여 하바드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정수 동문이 운전 겸 안내를 맡아 보스턴의 역사 유적지를 안내했다. 보스턴은 미국 역사의 출발점이다. 영국의 청교도이자 비교적 지식인들이 사는 영국 동남부 지역 잉글랜드인들이 메이 플라워를 타고 꿈꾸어 왔던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은 곳이다. 이 동문은 해박한 보스턴 역사 지식으로 누스 브릿지, 콩코드 Battleground, 월든 호수 등을 안내했다. 오후 4시가 되어 호텔에 돌아왔다. 이진희 동문 팀은 하바드 Natural History 박물관 등 하바드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하바드 야드에 있는 존 하바드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존 하바드 동상 발을 밟으면 하바드에 들어간다는 속설 때문에 입학절만 되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다 발을

잡고 사진 찍는 곳이다.

쇼핑몰 팀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내릭 쇼핑몰이 세일을 하고 있어서 동문들은 전혀 예상치 않은 50% 세일 품목을 만났다. 한 분은 원하던 브랜드의 부엌용 식칼을 50% 할인된 값으로 구매하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동문은 마을에 꼭드는 구두를 유명한 노스트롬Nordstrom 백화점에서 역시 반값에 구입하여 즐거워했다. 오후 4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다.



Walden Pond에서. 왼쪽부터 홍지복(간호 70) 뉴잉글랜드 동문, 이대영(문리 64) 뉴욕회장 부인, 이진규(농대 60) 전 미주회장 부인, 한재은(의대 59) 전 시카고회장 부인



존 하바드 동상 앞에서. 좌로부터 이진희 동문(수의 87), 김경태 총동창회 전무, 최병갑 모교 동창회 부회장, 민경업 모교 동창회 상임부회장, 권기현 동문(사대 53), 김명자(문리 62), 이채진 교수부인, 정정욱 동문부인, 이채진 교수



이채진 (문리 55)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제27차 평의원 회의 강연 주제

[기사: 이영인 편집위원/홍보국장, 사대 74] 이채진 교수가 지난 6월 15일 보스턴에서 개최된 미주동창회 제27차 평의원회의에서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되어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평생을 공산주의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연구에 바친 원로 학자답게 해박하고 탁월한 식견, 관록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디테일도 있어 아직도 사건의 숫자(연도)까지 제시하는 탁월한 기억력을 보여주어 감탄을 자아냈다.

아래는 이 교수의 강연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감히 이 교수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까 두렵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작업 시간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강연 발췌 및 요약=====

전 하바드 대학 교수였던 아서 슈레진저 박사는 “역사는 미래에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다. 이는 옛날에 품었던 웅지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서울대도 더 발전하게 되면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더 각광을 받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1. 판문점 선언의 평가와 전망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은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처음엔 이번 회담의 성과를 “기대만 우러난” 으로 보았으나 중국엔 “기대 이상” 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해별정책에의 집념과 확신, 그리고 김정은의 신실 용주의에로의 정책적 변화가 이 회담의 성공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남북간에는 과거 이와 유사한 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통일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었으나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다. 한국의 조영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28일 일련의 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은 평화와 안정이 주의제이었기 때문에 통일은 중심의제가 아니었다” 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했다.

2. 미북 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 사상 첫 정상회담이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다. 이번 회담의 성사 요인은 미국의 강압적 외교, 즉 무력 수단을 통한 외교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책과 UN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제적인 경제제 체제 조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국의 신북고주의가 회담 성사의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중국은 신

조공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중국 영향력 유지를 바라고, 미국은 위대한 아메리카를 꿈꾸고 있다. 일본도 러시아도 과거의 찬란했고 강력했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북고주의의 편린을 보이고 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평가와 전망>

북한의 핵 완전 폐기는 사실상 어렵다. 북한이 숨기려고 맘 먹으면 자그만 핵폭탄을 넣은 북한 전역에서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 인력도 한 정되어 있어 충분한 사찰 인력을 보낼 형편도 안된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감안하면 나는 유보적으로 본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즉 완전히 안된다고 볼 수도 없고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미북 정상이 역사상 처음 만나 현안 최대 이슈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 게다가 미북이 지난 70년 간의 전쟁과 냉전을 종식하고 화해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공식적인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아 결국 점진적, 단계적, 예측 불가능한 장정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라 문재인이나 모두 4년 내지 7년 정도란 일정한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김정은은 경우에 따라서 30년 이상 집권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결국 시간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비핵화의 선택>

비핵화의 선택은 2017년의 상황 즉 북한의 핵실험 지속, 미사일 발사 실험, 전쟁 위협 등의 상황으로 갈 것일까? 아니면 50% 만족, 즉 부분적 비핵화, 핵의 해의 반출을 막는 비핵산정책,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억지 정책의 선택을 할 것인가? 또는 100% 만족인 CVID, 중 장거리 미사일 폐기, 생화학 무기 폐기 등의 선택을 할 것인가의 시로 다른 목표가 있다. 나는 50% 만족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3. 통일은 필요한가?

통일에 대한 의견은 연령층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대/30대의 39.6% - 41.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0대 이상은 57.8%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60대는 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연령층이 높아 갈수록 통일에의 염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협상과 합의의 역사>

그동안 남북한 간에는 74 공동성명 (1972년 7월),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615 공동선언 (2000년 6월), 104 공동합의서 (2007년 10월) 등의 회담 성과가 있었다. 2000년의 615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란 내용이 있다. 나는 얼마전 615 공동선언을 했던 당시 장관을 만나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뭘 의미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도 잘 모른다고 답을 했다. 대체적으로 1민족 2국가란 개념일 것이라는 공동인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정도의 합의를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본다.

<통일의 방법과 가능성>

역사적 사례로 보아 통일은 4가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합의에 의한 통일(라오스) (10%) 전쟁을 통한 통일(월남) (20%) 흡수에 의한 통일(독일) (30%) 평화공존, 기능주의통일(중국과 대만) (40%) 이다. 나는 한국의 미래의 통일 모델을 현 시점에서 중국과 대만 방식을 40% 확률로 보고 있다.

가. 합의에 의한 통일(라오스)

라오스는 1962년 제네바공동성명을 통하여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수이던 중립파가 몰락함으로써 1975년 적화통일되었다. 중립파의 실패이유로는 1). 지도력의 결여, 2). 국내여론의 양극화, 3). 무장해제 실패, 4). 경제자립도 부족, 5). 국제협력 약화, 6). 월남전쟁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나. 전쟁을 통한 통일(월남)

호치민은 가난하고 청렴한 공산주의자였다. 이로 호치민은 남북 월남에서 인민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외연 확대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자였다. 반면,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은 진정한 공산주의 지도자로서는 부족함이 많다. 월남패망의 원인으로는 “월남의 정치적 정당성 결여, 사회경제적 개혁 부족, 전반적인 부패 만연, 종교적 대립 심화, Ho Chi Minh의 위력, 강력한 민족주의, Guerrilla Warfare, 반전운동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다. 흡수에 의한 통일(독일)

신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전 독일수상이 1989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어느 기자가 그에게 “베르린 장벽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그는 “내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 달 후 1989년 11월 9일에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즉 브란트란 동서독 최고의 전문가도 한 달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통일의 예측은 어렵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다. 독일통일의 원인으로는 1) 경제적 격차증가, 2) 서독의 문화전파, 3) 동독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4) Gorbachev의 개방정책 - 독일은 독일이 알아서 하라, 5) 동서독의 포용정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드레스덴(Dresden) 예에서 보듯이 문화전파는 중요하다. “당시 동독인들이 분자인 드레스덴으로 전근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나 고 물기 보다는 그곳에서도 서독 TV를 볼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서독문화의 위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형성도 중요하다. 크고 작은 수많은 시민사회(동창회, 모임임, 친목 사교모임, 각종 포럼, 세미나 등)가 형성되어 있으면 자연히 다양한 정보와 욕구 등이 전파된다. 북한에는 현재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독일 통일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통일의 가장 쉬운 분야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어려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독일 통일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평화 공존과 기능주의 통일>

기능주의란 기능분야 협력(경제, 예술, 관광, 인도주의)이 진행되면 그 다음으로 높은 단계의 협력(외교, 정치, 군사)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나는 신기능주의라고 새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력세력이 증가하면 내연이 확대되고 파급효과가 증대됨을 뜻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 평화공존과 상부상조에 관한 신뢰가 필요한데 과연 남북한간의 신뢰가 있느냐의 문제를 지적한다. 둘째, 독재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을 들고 있다. 셋째, 이론과 실천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EU와 Brexit를 보면 회의론에 대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

참고로 내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한 근로자들 중에는 고관의 자녀도 있고 심지어는 의사도 있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물으니 “수입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그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기 위해 경쟁이 매우 높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 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고 언급하여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것 같다. 한편 운동권 원로 백낙천 전 교수는 “낮은 단계 남북연합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적 교훈>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필요한 조화를 이룰때 진정한 통일이 성취될 것이다. 통일에 관한 지상주의, 환상, 감상은 지양해야 한다. 합의에 의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쟁을 통한 통일은 기피해야 한다.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평화적공존과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점진적, 단계적, 민주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통일한국이 진정한 민족적 통합,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국강병정책, 선린군형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개발해야 한다. 청사진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동창회의 동참을 기대한다.

[이채진: 모교 정치학과 학사, UCLA 정치학박사학위 취득, 현재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 석좌교수 및 명예교수.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등 다수의 저작 과 80여편의 학술 논문을 출판. 한국통일연구원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초빙교수, 국립외교원 초빙교수, 통일협의회장, Korea Foundation 자문위원, 미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 국제전략론 재연구소 소장 등 역임]



강윤희 (외교 84)

우리에게 코카서스 3국은 이름조차 생소한 머나먼 남의 나라 같은 곳이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코카서스 산맥 위에 있는 이들 3국은 유라시아 대륙판의 저쪽 편에 붙어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은 구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한 1991년 말까지 우리와 어떠한 교류도 없던 곳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방송된 TV 예능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가 큰 기여를 했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산맥 지역에 있기 때문에 코카서스 3국이라 불린다. 북쪽의 대코카서스 산맥, 남쪽의 소코카서스 산맥 사이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아르메니아는 국가 전체가 고원지대로 소코카서스 산맥 위에 놓여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내다보았던 장대한 코카서스 산맥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트빌리시-예레반(아르메니아 수도) 간의 비행기 이동 중에 내려다본 아르메니아는 마치 겨울이었던 관례로 온통 눈에 뒤덮여 있었다.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이후에 도착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아라랏산부터 도시며 거리며 집까지 모두 눈에 덮여 있어서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미지의 설국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산맥을 끼고 있는 코카서스 지역은 축복받는 땅처럼 보였다. 바쿠 근교의 고부스탄 암각화들이 보여주듯이, 4만 년 전 후기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 흥미롭게도, 반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바쿠 주변 지역의 현재의 풍광과는 달리, 후기구석기 시대에는 고부스탄 지역이 숲이 우거지고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한다. 한편 BC 8세기 우라르투 왕들의 기록에 따르면, 아르메니아는 “포도밭의 땅”이었다. 창세기에 대홍수 이후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빠지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르메니아는 인류 최초의 와인생산지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와인을 애기하자면 조지아 와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지아의 카헤테티, 이메레티, 카르틀리, 라차, 구리아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구소련 시절 인기 상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킨즈마라울리, 흐반츠킨라, 사페라비는 당시 최고의 와인으로 간주되었는데, 조지아 출신인 스탈린은 크렘린에서 흐반츠킨라를 즐겨마셨다고 한다. 한편 조지아는 맛난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지금도 러시아 내의 최고의 맛집은 대부분 그루지아(러시아어로 조지아) 식당이다.

코카서스가 풍요로운 땅이었기에 그럴까? 오래전부터 수많은 민족이 코카서스 지역에서 살아왔다. 대코카서스 산맥의 북쪽 지

워싱턴주 (시애틀)
2018 6월 SNU Forum

구 소련연방 코카서스 3국으로의 초대 (Georgia, Armenia, and Azerbaijan)

역, 즉 러시아령 지역까지 포함하면, 30개 이상의 민족이 코카서스 지역에 살고 있다. 코카서스 3국에 한정해서 보면, 아제리인은 알타이어족의 투르크계 민족이고, 조지아인은 카르트벨리어족의 코카서스 인종, 아르메니아인은 인도유럽어족의 아르메니아 인종이다. 종교적으로는 조지아인과 아르메니아인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아제리인은 이슬람교도이다. 이들 주요 민족 이외에도 압하스, 오세티야 등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고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족 간의 분쟁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나 민족주의가 타 민족을 배제하는 정치운동으로 등장할 때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코카서스 3국은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어 있다.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페르시아로부터 들어온 조로아스터교가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지금은 바쿠 근교의 아테슈가 사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기독교는 3-4세기경 소아시아를 거쳐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 아르메니아는 301년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327년 조지아가 그 뒤를 따랐다. 로마 제국이 380년에 이르러서야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기독교 국가로서의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자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페르시아 및 투르크계 국가의 영향력이 코카서스 지역에서 커지게 되자 이슬람이 전래되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아제리인들은 무슬림이 되었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기독교 전통을 유지하였다. 한편 소련 시절에는 무신론이 강하게 설파되면서 교회나 이슬람사원이 파괴되거나 황

폐화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각기 독립국가가 된 이후 아르메니아 및 조지아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도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크게 보아 동방정교의 한 분파인데, 예수의 열두 제자 중 바들 로마와 다대오가 아르메니아 지역에 기독교를 최초로 전하였다는 것을 기려 사도교회라 불린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의 기독교화를 이룬 것은 훨씬 훗날의 성 그레고리에 의해서이다. 아르메니아에 기독교를 전하러던 성는 불참혀 1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사시드 왕조의 트리다테스 3세가 병이 들자, 성 그레고리는 그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그를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바로 이 트리다테스 3세가 301년 기독교를 아르메니아의 국교로 선포한 것이다. 지금도 아라캇산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은 호르비랍 교회에 가면 성 그레고리가 감금되어 있었던 지하 감옥을 방문할 수 있다. 기독교화 이후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신앙을

꽤 수 천명의 수도승이 15개 가량의 수도원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쓸쓸한 곳이었다. 6세기 경에 세워졌다는 이 수도원 단지는 13세기 몽골 침입 시 파괴되었다가 14세기 재건을 하였지만 결국 1615년 페르시아의 아바스 1세 군대의 침입과 약탈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진 곳이었다. 소련 시절에는 이곳이 군사훈련장으로 쓰였다고 하니 문화유산의 소련식 재활용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에는 8세기에 세워진 주마 모스크를 비롯하여 많은 이슬람 사원이 있다. 그 중에서도 바쿠 남쪽 카스피해 유전지대에 가까이 있는 비비헤이бат 모스크의 역사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13세기에 세워진 이 모스크는 1936년 소련 정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아제르바이잔의 독립 이후 1999년에 재건축되었다. 소련공산당의 종교 혐오증은 러시아정교회에서 이슬람사원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작동했던 모양이다.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도 1931년의 어느 날 하루밤 사이에 완전히 폭파되었다. 대신 소련공산당은 이 자리에 인민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옥외수영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옥외수영장을 없애고 다시금 대성당을 지었으니 비비헤이бат 모스크의 역사와 비슷하다 아니랄 수 없다. 한편 최근에는 현 대통령인 일함 알리예프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임 대통령이었던 헤이다르 알리예프를 기려 거대한 규모의 헤이다르 모스크를 건축하였다. 신생국의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데 종교만한 것이 있으리라 아버지에서 아들로 정권이 승계되는 국가에서 국민의 충성심이 향할 거대한 건축 구조물은 꼭 필요한 법이다.

코카서스 지역에 내게 특별히 다가왔던 것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멋진 유적지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코카서스 지역의 역사가 주변 4대 강구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상황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의 분쟁을 접어들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다. 코카서스 지역은 일종의 문명의 교차로였기 때문이다. 지도를 조금 넓혀서 보면, 코카서스 북쪽으로는 넓디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가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코카서스 초원지대가 펼쳐지고, 이 땅에 바로 붙어있다. 따라서 코카서스 주변 지역에서 강대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마다, 코카서스 지역은 이들의 공격이나 지배를 받곤 했다. 비잔틴제국, 오토만 제국, 몽골 제국, 페르시아 제국, 러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국들이 코카서스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아르메니아 세반 호수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몽골식 변발을 하고 있는 예수 부조상을 보게 되었는데, 현지 가이들은 몽골 제국의 지배 하에서 몽골인의 환심을 얻어 교회의 파괴를 막고자 이러한 부조물을 교회 문에 붙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수많은 제국의 침입과 지배 하에서 살아가기 위한 한 민족의 처절한 몸부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최후의 지배자는 러시아 제국이었다. 19세기에 들어와 러시아 제국은 페르시아 및 오토만 제국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쟁 끝에 코카서스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대학교 재학 시절 김용구 교수님의 서양외교사 수업에서 배웠던 러터 전쟁, 산스테파노 조약, 베를린국제회의 등등이 다시금 생각나는 대목이다. 당시에는 이

척박한 광야 한 복판에 있던 데이비드 가례자 수도원 단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한

를 유럽 강대국 간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영국, 프랑스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배웠는데, 이를 코카서스 지역인의 관점에서 다시 보니 그 의미가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지역 내부적으로 보면, 러시아 제국의 코카서스 점령은 1817년에서 1864년까지의 길고도 격렬했던 전투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의 코카서스인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기독교인이었던 조지아인과 아르메니아인에게는 이슬람국가인 페르시아나 오스만 제국의 통치보다는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 제국의 통치가 더 선호할 만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오스만 제국에 비해 러시아 제국은 선진적인 문물과 문화를 가진 유럽 국가였기에 코카서스 지역민들에게 더 매력적이었을 수 있다. 어찌되었던 간에, 1870년대부터는 러시아인 총독이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코카서스 지역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 통치 하의 코카서스 지역은 지금의 코카서스 3국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 예컨대 당시의 코카서스 지역의 중심지였던 티플리스(지금의 트빌리시)에는 조지아인보다 아르메니아인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인, 유대인 등이 함께 살고 있었다. 티플리스의 다문화적 특성은 트빌리시의 문화유적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는데, 트빌리시는 한 도시 안에 조지아 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유대교 시너고그, 이슬람 사원, 페르시아식 목욕장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발발은 코카서스 지역에서도 큰 정치적 반향을 불러왔다.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정치적 격변은 코카서스 지역의 독립을 촉진하였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이 10월 혁명을 통해 페트로그라드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듬해 1월 제헌 의회를 해산시키자, 코카서스 대표들은 1918년 4월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고 다민족 연합 형태의 트랜스코카서스연방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다민족 연합은 오스만 제국군의 아르메니아 공격 앞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되었고, 5월 26일, 28일, 30일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독립이 차례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들 3개 신생국들은 독립 초기부터 외부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공격과 영토 요구, 지역 내부적으로는 그들 간의 영토 분쟁에 시달렸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은 코카서스 접경 지역에서 약소국인 아르메니아 및 조지아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간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영토 분쟁이 불거졌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의 경계선과 영토의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에서 연유되었다.

1918년 여름부터 계속되었던 러시아 내전에서 볼셰비키당의 적군이 승기를 잡자, 1920년 적군 11군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코카서스특별국의 지도 하에 코카서스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1920년 4월 28일 아제르바이잔이, 11월 29일 아르메니아가, 그리

고 마지막으로 1921년 2월 25일 조지아가 소비에트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이들은 초기에 하나의 행정구역(트랜스카프카스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묶였으나 1936년 3개의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 발발부터 1921년 조지아의 소비에트화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먼저 조지아는 사회주의 계열의 멘셰비키당이 확고하게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예외적인 곳이었다. 조지아가 비록 정파는 다르지만 사회주의 권력이 성립된 곳이었기에 모스크바의 볼셰비키당 내부에서는 조지아를 군사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볼셰비키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을 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지아 출신의 볼셰비키였

국경선을 제시하였다. 1920년 오스만 제국과 전승국 사이에 세브르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윌슨 대통령의 국경선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승국 어느 국가도 세브르 조약의 실행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미국 의회는 아르메니아 위임통치안을 부결함으로써 아르메니아를 책임지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미국 어느 국가도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무스타파 케말 정부 하의 터키군이 아르메니아를 다시금 공격하였다. 결국 아르메니아와 터키 간의 국경문제는 터키와 소비에트러시아가 정부 간의 외교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는데, 그 결과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참혹한 것이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아라랏산을 위시하여 터키가 점령한 아르메니아 지역이 거의 모두 터키의 영토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아르

아, 조지아 모두 연방공화국이었는데 독립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이들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이다. 소련 말기인 1988년에 이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독립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의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으로서 현재 아르메니아가 실외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에 붙어있지 않고 자국과 터키 간에 끼여 있는 나히체반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실외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와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국경 봉쇄하였을 때, 아르메니아인들은 수 년 동안 세반 호수에서 나는 생선과 감자만 먹으며 버텼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국경이 폐쇄되어 있어서 직접 월경할 수 없다.

조지아의 분쟁문제는 코카서스 이웃 국가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조지아 내부의 소수민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조지아가 2003년 소위 색깔혁명-구소련 지역에서 발발한 민주혁명을 지칭-이 일어났던 곳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하였다. 자국을 러시아어로 그루지야라 부르지 말고 영어로 조지아라고 지칭해 달라는 주한 조지아대사의 말에서도 이러한 지향성은 쉽게 읽을 수 있다. 조지아는 적극적으로 EU 및 NATO 가입 의사를 표방하였는데, 이런 조지아가 러시아로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에 전쟁이 발발한 표면적인 이유는 조지아 내 소수민족 문제 때문이었다. 조지아가 자국 내 남오세티야 지역을 공격하자 러시아가 친러성향의 오세티야 민족의 편을 들어 군대를 투입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다. 2008년 조지아-러시아 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러시아군은 남오세티야 지역에 계속 주둔 중이다.

이 외에도 소련 시절 그루지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내의 자치공화국이었던 압하스가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함으로써 빚어진 조지아-압하스 분쟁이 있다. 이 분쟁으로 인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군사충돌이 발생하였는데, 2008년 이후 조지아군은 완전히 압하스에서 내몰렸다. 러시아는 2008년 압하스와 남오세티야를 독립국가로 공식 승인하였으나, 조지아는 이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압하스와 남오세티야 문제는 이들과 조지아 간에, 또한 러시아와 조지아 간에 지속적인 분쟁의 요소로 남아있다.

이처럼 구소련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대부분이 코카서스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코카서스 지역은 분쟁에 휩싸여 있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들의 삶의 조건 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티플리스가 그랬듯이 코카서스지역 전체가 관용과 공존의 공간이 된다면 더욱 멋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꿈꾸어 본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당시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연방공화국들은 각기 독립국가가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

>> P 5로부터

- **이전 회보의 포맷을 전반적으로 따르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폰트를 바꿨음.**
- **지속적으로 새 필진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 각 지부의 젊은 동문을 필진으로 참여 시키려고 노력함.**
- **주소록 업데이트**

1. NCOA(National Change Of Address) 서비스: 기존의 주소와 이름이 매칭이 되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
2. QR code 및 구글 form 을 활용하여 회원들이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적 홍보 필요
x. 광고 및 후원금 독려하고 향후 보다 나은 동창회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정수:** 예전에 회보 편집해 보셨지만, 회보가 제시간에 배달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보 제때 도착하려면, 관련된 사람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함. 원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좀더 알아보는 열의가 필요.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도 시애틀과 같은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니 알아보라. 동창회보에 다른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윤상래:** 가장 큰 고민은 원고 부족입니다. 각 지부의 사무 총장은 자동적으로지역별 회보 특파원이나 적극적으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위원회 – 김용구 (공 66)



i. 금번 장학 위원회는 약간 방식을 바꾸어서 미국 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동문을 대상으로 하였음.
ii. 총 13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11명을 선발 (2명은 서류가 미비)
iii. 이종욱, 유상욱 – 2,000불, 그 외 1,000불씩 총 13,000불의 장학금을 집행함
iv. 이월금 + 모금액 + 후원액 = 13,000

● **배규영:** 장학금 지원은 동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선발된 장학생들 중,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장학금에 대한 홍보에 지역적 편중이 있지 않으나 생각됨
● **김용구:** 동창회보를 통해 2달간 홍보하였으므로, 홍보가 편향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움. 야마 미네스타 지부의 회원들이 지역 동문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encourage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홍혜래:** 장학생의 지역이 편중된 것은 문제임. 시카고에서 지원한 학생이 선정되지 않은 까닭은?
● **김용구:** 13명 중 2명은 서류 미비로 실격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모두 동일한 requirement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별도로 선정/탈락 이유를 통보하지는 않았음.
● **한재은:** 미주 동창회가 아니라 각 지부의 장학 사업에 대해서도 미주 동창회가 종합하여 통계만이라도 발표해 주면 좋겠다.
● **김용구:**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렸다. 평의원 회의 자료에 회칙 원본이 없다.
● **한재은:** 지금은 미주 동창회 후원회 세칙 개정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니다.
● **윤상래:** 종신 이사비를 여러 번 낸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좀더 대우해 드릴 필요가 있음. 또한 3백만불 목표 달성을 위해 기부금을 독려하고자 하였음. 이에 부득이 등급을 나누었음.
● **오인환:** 현재 3,000불 후원은 종신 이사와 바뀐 것이 무엇이 다른가
● **한재은:** 기존의 후원 종신이사를 4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 **오인환:** 현존하는 종신 이사들의 등급을 회칙에 명시해 달라.
● **김정수:** 모교 발전 기금을 샌쥬리로 만든 것은 좋으나, 이를 위한 절차와 진행이 부족했다.
● **한재은:** 미주 동창회 후원회는 미주동창회 사업 및 회보 발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함이므로 모교 발전 기금과 무관함.
● **손재욱:** 종신 이사 회비는 수차례의 회의를 걸쳐 향후 큰 사업을 위해 보충하기로 협의된 것이나, 기록은 모두 남아 있음. 미주 동창회 후원금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조금 혼선이 생긴 것 같음.
● **한재은:** 종신 후원 이사 및 그에 적합한 기부액은 미주 동창회 후원회 세칙에서 정하고 이를 따름. 단, 그 후원액의 원금을 따로 분리해 두는 것임. 그러나 이자 및 dividend 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미주 동창회장의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함. 즉, 이를 완전히 따로 볼 수는 없음.
● **손재욱:** 장학금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적 절차 및 그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실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우선 펀드만 모집하여 윤상래 회장님께 넘기드렸고, 이를 execution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각 지부별 장학 사업을 하고 이를 회보 등을 통해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윤상래

i. 이번 회기에 모금된 금액은 \$950 → 2018년 12월 18일에 CD에 입금
ii. 모교발전기금에서 내일 만찬 음악회 비용 지불. 이미 작년 평의원들과 협의된 내용임

■ 회칙 위원회 – 한재은 (의대 59)



i. 개정 세칙 낭독
1. 5조 2항에 보면 종신 후원 이사를 다시 4등급으로 세분하였음.
2. 7조 2항은 종신 이사가 기부한 후원금을 century foundation 으로 들어가도록 함
3. 7조 4항은 상임 이사(회)에 대한 정의: 상임 이사는 연임이 가능하므로 임기는 2년으로 함

● **김정수:** 동창회가 2년마다 옮겨다니기 때문에 본부 소속 평의원 수를 파악하기가 어

하였음. 이중 종신 후원금이 century 로 바뀐 것으로 보임.
● **한재은:** Century는 원금을 건드리지 않음. Amendment에 이제까지의 변경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함.
● **이상운:** 본 세칙은 이번 회의에 상정된 것이나, 반드시 통과될 필요는 없음.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것.
● **안선미:** 나눠준 자료 상 제 1조
● **이상운:** 이 부분은 typo 이므로 개정되어 올라갈 것.
● **서종환:** 이 세칙에 동의, 이강원: 재청
● **이상운:** 재정 독립 명기되어 있음. 이를 숙지하신 후, 이 세칙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 바랍니다.
● **배지선:** 27명
● **이상운:** 반대 거수 바랍니다.
● **배지선:** 6명
● **이상운:**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 **이희만:** 이때까지의 century foundation 모금액이 연결되지 않음.
[진행발언] 조하연: 긴급동의입니다. 지금은 보고를 받는 순서이지 개정 논의는 아닙니다.
● **오인환:** 조금 전의 동의/반대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세칙 개정안의 상정에 관한 것이냐, 개정안의 동의에 대한 것이냐. 그리고 혼선이 있으니, 제 1조의 typo를 지금 수정해 달라.
[진행발언] 이상운: 그럼 약 1분간 정회하고 제 1조를 수정하겠습니다.
● **오인환:** 또한, 명칭이 계속 바뀌어 혼선이 온다.
● **한재은:** 이는 2014년에 변경된 것이며, 당시의 amendment 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 **손재욱:** 제 1조에서 월간을 빼고 회보 발행으로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대영:** 그리고 회보 발행을 위해 동창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창회 활동, 회보 발행으로 순서가 되어야 함.
● **손재욱:** 아예 회보 발행을 동창회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 **이상운:**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 **김정수:**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보 발행이 주요 활동입니다.
● **이상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다른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동창회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하시니까
● **전환:** 동의합니다.

■ 누락된 회칙 개정안

● **한재은:** 설명
● **이상운:** 이는 이미 지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십시오.
iii. 오인환: 한국학 위원회가 deferred되긴 하였으나, 아예 빼진 것 같다
● **한재은:** 이는 브레인 네트워크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된다. 아직까지 그 정도로 세분화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 **손재욱:** 평의원 정의에 대한 flexibility 를 두어 타이틀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운:** 회칙에 따르면 오직 6명의 당연직 평의원이 정되어 있음. 현회장, 명예회장, 차기회장, 직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관악위원회. 따라서 미비/누락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만든 것임 (?????)

- **한재은**: 필요에 따라 개정 가능
- **손재욱**: 회장의 재량에 따라서 위원장 임명에 대한 flexibility를 주어야 지역 특색에 따른 사업 추진 등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음.

■ 평의원의 위임장 작성과 관련한 amendment 상정안

i. 당연직 평의원의 숫자가 늘어나 누구에게 proxy를 주느냐가 명확하지 않아 만들게 된 amendment.

- **이상윤**: by law 에 따라 USA delegate 는 proxy를 사용할 수 없음.
- **오인환**: 단과대 회장이 proxy를 사용할 수 없으면 오히려 참석을 discourage 함. 따라서 단과대 회장, 차기회장은 proxy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특히, 의대의 경우 1,200명의 동창회원이 있는 큰 단체.
- **한재은**: Proxy 는 참여도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다른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ex special invitation 등)
- **이상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정식으로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세션 시작: 1시 20분부터 – 평의원 42명 참석]

- I. 26차 평의원 회의록 인준
- 평의원 42명 참석
 - 찬성: 41명 만장일치로 통과
 - 반대: 1명
 - 이대영: 미주동창회 회칙 제 8조 2항

■ 나눔위원회 – 황선희 (공대 74)



- 3년임기의 위원회 장을 맡고 있음.
- Appendix 14에 자세한 내용 찾을 수 있음
- 사업 1: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동문을 찾아 돕는 사업 추진
- 사업 2: 동문들이 주관 또는 운영하는 charity 사업을 지원 – Education (장학사업) 및 charity (자금, 재능 등)가 우리 동창회의 목적이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 나눔 위원회임.
- 자선 사업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 지속적으로 운용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 사업의 예로 작년 허리케인 허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문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하고 약 2개월간 홍보 함. 4800불을 휴스턴 지부에 전달
- 기타: 워싱턴 DC 자선 음악회 후원 – 윤상래, 신용남 각 500불 후원, 탈북난민돕기 자선음악회 1,000불 – 이 중 500불은 윤상래 회장

- **정태영**: 동의
- **한재은**: 제정
- **오인환**: 나눔 위원회 1년간 사업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 **황선희**: 동창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consensus는 멤버간에 잘 이루어진거 같다. 그러나 실제 동문들의 talent 와 후원을 모으고 이를 의미있게 사용하는 실무에는 아직까지 발전실점 많이 많다.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끌어가야 한다.

xi. 반대 없음: 만장일치로 인준

■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 윤상래



- Foundation 생긴 후 지난 회기년도 14분 i. 3천불씩 후원을 함: 김문소, 김용현, 주중광, ...
- 현재 약 22만불 가량 CD에 입금된 상태 + 12월에 약 9천불 추가 입금 예정

- **손재욱**: 향후 이자가 붙어나면 원금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잘 관리하시기 를 바람

- **한재은**: 지난 1회기에 14-15분의 종신이 사가 영입됨, 매우 이례적.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냈는지?
- **윤상래**: Century foundation 이 생기고 그 목표 (3백만불 모집하여 동창회 백년대계) 계속 홍보가 되면서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게 된 것 같다.
- **고일석**: 윤상래 회장님의 리더쉽과 홍보가 큰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 **윤상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인 홍보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종신 이사비 납부 내용은 소실되지 않도록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전구**: 각 위원회 별 장부가 다 따로 있습니까?
- **윤상래**: 다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 사업위원회 – 허유선 (가정 83)



- My story, your story 에 감명받은 본교로부터 초청 받아 10월 home coming day 미주 동문들이 campus에서 2박 3일간 숙박하며 함께 여행 (천안 전쟁기념관 방문, 홈커밍데이 당일 총장 방문 및 피크닉 등)
-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 발전기금 방문 (앞으로 미국에서 성공하신, 그리고 성공할 많은 동문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모교에 많은 후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홈커밍데이에 대한 홍보는 다음달부터 회보에 나갈 예정입니다

■ 회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 질의

- **이대영**: 8조 2항에 대한 해석 부탁. 사무총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협조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인지 받는다는 것인지?
- **한재은**: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상윤**: 그럼 이부분은 회칙위원장께서 연구하셔서 필요하다면 문구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1차년도 수입과 지출 재무 보고

– 김제성



- 여러분들이 지원과 집행위원들의 노고로 1년간 매우 좋은 살림을 했다.
- 1년간 순수익: 약 110k
- 현금 잔액 약 138k
- 특히. 종신이사비 42,000불이 매우 큰 힘이 되었음.
-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8,000불이 들어와 2회에 걸쳐 잘 처리 수 있었음
- 백옥자, 허유선 동문의 광고 수수료 노고로 약 24.3k
- 현재까지 수입이 300k 초과 (최초). 반면, 총 지출금은 약 180k

- **배규영**: 기부금을 내었을 때, Endowment의 이자수입만 동창회 운영기금으로 쓰고 Endowment 기부금의 원금은 뚝뚝다라고 하면 이것은 Permanent (True) Endowment fund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 기부자의 승낙에 따라 원금을 일정기간 후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는 Endowment에 '준하'는' Term (Pseudo) Endowment fund 로 간주된다. 추후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Platinum과 Diamond 기부금 처럼 큰 액수의 기부금을 받을 때는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기부자의 서명을 받아둘 것

- **김제성**: 모교발전기금: 이번 회기 950 불이 추가로 모여서 140k 가량이 적립되어 있음. 이자가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음.

- **이성숙**: 큰 2가지 기금이 있었음 (모교 발전기금과 종신 이사비). 모교 발전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종신 이사비의 경우 beginning balance가 188,000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윤상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century foundation 으로 넘어간 것인가? (김제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남겨 달라.
- **한경잔**: 지부 분담금 배정 원칙이 무엇인가?
- **윤상래**: 평의원에서 지부 인원수에 따라 배당한 것 (인구비례). 매년 평의원회에서 인원 증감에 따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한경잔**: 지금 시카고의 지부 분담금은

20% 나 됨. 평의원 수 비례는 10% 대임.

- **김제성**: 이 부분은 by law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겠다
- **허유선**: 1. 멤버십 정의에 따른 일반회비를 낸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번을 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가?
- **김제성**: 지금 재무 보고에는 2번을 내신 분들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 회기의 수입 계산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이전구**: 남가주 지부 분담금이 500불로 되어 있는데?
- **윤상래**: 그건 typo 입니다
- **김제성**: 그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백옥자**: 휴스턴 지부도 내걸로 알고있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김제성**: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이상윤**: 지금 남부 내역은 5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남부 내역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고 다음에 업데이트 하겠다.
- **오인환**: 각 지부의 부담금을 다 걸으면 약 11,000불이 됨. 그러나 다 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를 평의원 회의 비용 및 미주 동창회 활동에 요긴하게 사용됨. 지부 사정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있음
- **손재욱**: 미리 회비를 낸 사람들을 같은 회기의 수익으로 잡는 것은 회장단이 바뀌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제적 관리 당부드린다.
- **김제성**: 알겠습니다.
- **이상윤**: 알겠습니다.
- **한재은**: 지부분담금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임.

감사보고

– 박영철 (농대 64)



- 김명승 감사 인준 – 윤상래, 강신용 동의, 성준용 – 제정, 만장일치로 김명승 동문이 감사로 인준됨
- 작년 감사 보고 6월 중순까지 자료, 6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조금 더 업데이트 해서 11월에 sign off 함
- Financial statement 감사 완료, 6월 7일 박영철 싸인, 6월 11일 김명승 싸인

- **서중만**: 26개 지부 annual tax return 수행여부의 확인은 누가 합니까?
- **박영철**: 감사 manpower 가 부족. 동창회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를 맡아서 하고 시간을 할애해 줄 전문가를 찾기 어려움
- **서중만**: 내년 보고 시 각 지부별 tax return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독려가 될 것.
- **오인환**: 재정 보고 인준 건너뛰었다. 감사보고와 같이 인준을 하자
- **이상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 **김문소**: 제정
- **김정수**: 1명 반대 – 두 가지를 함께 인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이상윤**: 그럼 따로 하겠습니다. 절차는

중요

- **배규영**: 재무보고는 인준 투표, 감사는 수락/거절 투표를 해야 함
- **이상윤**: 의원님들의 제안을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 재무보고 인준 투표, 반대 1명, 인준 통과
- 감사보고 수락/거절 투표, 반대 2명, 과반수로 수락

세금공제 혜택 유지위한 IRS 관련 규정 안내

– 신용남 (농대 70)



- IRS로부터 tax advantage를 받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하는 requirement 가 있음. Central organization (미주동창회) 가 본부 및 지부의 각종 변경/추가/제외 사항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내 보고해야 함.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135일 내 세금 보고를 해야 함.
- 작년에 automatic revoked 된 지부가 있었음. 이슈의 심각성 파악
- 회장 임기와 회계 임기가 맞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됨.
- 커네티컷 지부 추가되어 그에 대한 사항의 보고는 완료하였음.
- IRS 보고 양식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음.
- 6개 지부만이 IRS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음.
- Revoke 된 지부는 후원금을 낸 회원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그리고 세금 공제 혜택이 취소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창회 부담금과 IRS 보고서를 지부에서 매년 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임

- **박용해**: 커네티컷이 작년 7월부터 sub-chapter 로 IRS에 보고 되었다고 하는데 501c 적용되는 것인지?
- **신용남**: 네, 주 정부에 legally recognized 되었습니다. 2월에 본부에서 IRS 에 보낸 것에 빠져서 3월에 다시 IRS 에 신고, 5월에 follow-up 하였음
- **이상윤**: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안선마**: 워싱턴 DC chapter 이름을 본부에서 바뀌서 IRS 에 보고해서 결과적으로 보고를 안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음. 각 지부에서 직접 IRS 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노티스 주시면 좋겠다.
- **허지영**: 예전에는 회비 모금액이 적어서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었음. 그런데 얼마전 확인하니, 조지아 동창회는 이미 revoke 가 되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음.
- **신용남**: 2009년 쯤 법이 바뀌면서 수입액수에 관계 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었음.
- **허지영**: revoke 된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신용남**: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reinstate해야되며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약 25,000 정도의 비용이 듬.
- **한재은**: 지역 동창회 명칭은 '서울대 ooo

- 다.
- **홍혜래**: 시카고 김승주 수석 부회장 추천 합니다.
- **오인환**: 정평희 차기 회장을 추천합니다.
- **고병은**: 북가주 최경선 회장님을 추천 합니다.
- **김정수**: 인선 위원 조건이 회칙에 나와 있습니까?
- **이상윤**: 회칙에 따라, 전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은 무조건 인선 위원이 되며, 그 중에서 전회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 **고일석**: 동의, ...

m.찬반 투표: 1명 반대 0 위원 후보 인준

기타언론 토의

■ 시카고 이현석 동문님 구명

– 김정수 (문리)



- 작년 SBS 보도 자료 시청
- 특허기술 보유한 촉망받는 중소 기업 대표, 2015년 갑자기 한국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신병 인도됨. 2년 넘게 억울한 가택연금 상태, 알고 보니 미국 검찰에서 알리지도 않고 기소한 후, 기소장을 수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렸음. 나라 기금을
- 김정수
- 이현석 - 2개 특허 보유
- 이미 1실에서 유죄로 끝남
- 3월 14일 20개월 1일 형을 구형함, 청원서 4월에 12개월 1일로 형이 낮춰 선고 됨
- ARRA 법 위반이 아니에도 동업자들이 부당하게 넣은 탄원서에만 기초해서 미검찰이 기소를 했고, 한국정부는 미검찰의 요청에만 따라 범죄자로 인도를 해버림

- **윤상래**: 미주 동창회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김정수**: 1. 청와대 (민정수석), 주미 대사에 청원서를 넣어 압박해야 함
- 2. 기소 및 수사 과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재판 결과도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됨. 따라서 인도 자체가 무효가 됨.
- 3. 시카고에서는 이미 4번의 청원서를 모음
- **윤상래**: 청원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까? 미주동창회에서 청원서를 쓴다면, 회원님들께서는 싸인을 해주시겠습니까?
- **신용남**: 기소장을 검토하고, 당사자라도 1시간 정도 통화를 함. 미주동창회가 한미간 외교관계와도 연관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fact 에 기반해야함.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4번이 바뀔. 1차 판결에 대해 시카고 영사에게까지도 편지가 갔음. 아직까지 1심만 판결이 난 것이나 3심까지 가면서 reverse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우선은 judicial branch judge 의 decision, prosecutor 의 기소 내용을 확실하고 냉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 **고일석**: 상식적으로, 한국 외교부에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법률 담당자가 있을 것

- 으로 생각됨. 그러한 전문가를 어떻게 수소문하고, 또 고용할 수 있느냐. 총영사를 통해 외교부, 청와대로 차근 차근 연락을 해야할 것.
- **윤상래**: 사실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다 해본 후, 동문께 청원드린 것.
- **이상윤**: 오늘 하루의 논의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한 후, 향후 추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모교발전기금 미주재단

– 신용남

- 모교발전 기금 재단은 2008년 뉴욕에서 비영리단체로 설립
- SNU foundation 은 우리 동창회의 존재 목적과 많은 부분이 겹치며 IRS로부터 Tax 공제 단체로 등록
- 즉, 2개의 단체가 미국 내에서 SNU의 이름을 걸고 동일한 활동을 한다? IRS 입장에서 IRS 603-252에 따르면 불허될 가능성이 있음. 즉, 한쪽이 rule-out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두 단체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 **윤상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 미주발전기금 임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 **신용남**: 미주발전기금 이사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음. 그리고 전화장님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음.
- **고일석**: 양측에서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윤상래 회장님 취임 이후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가 궁금함
- **윤상래**: 전전도 후퇴도 없음
- **오인환**: 2013. 7-2015. 6 까지 12대 회장을 하던 중에 이만택 이사장님을 만남. 이화여대의 경우 각 지역별 fund raising group 을 만들었고 결국 동창회와 갈등이 빚어져 완전히 틀어짐. 그런데 우리가 그런 route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래서 재단과 MOU 를 맺어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음. 그러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이 적극적 협력을 꺼림. 우리 단체에 비해 그쪽은 소규모고 역사도 짧고 모교 교수가 다수임.
- **서중만**: 이만택(의대 58) 이사장님과 교우를 많이 함.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신 차기 회장의 질문은 답변이 불가하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대발전기금에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시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인중**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사무총장): 두 단체인 SNU Foudnation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동창회처럼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교에 기부하고 싶은 동문들이 있는데 그 route를 잘 찾았고 있다

이었음. 즉, 원칙론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협력지점을 찾아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 지금 모으는 서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안이 없을 작년까지 약 7년 동안 약 8백 70만 달러를 모금하였음. 말씀하신 대로 동창회에 비해 막대한 얼마 안되는 인원으로 이런 성과임. 그리고 들어온 돈은 본교에서 이체(?)를 요청해주어 세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기전 후 순차적으로 본교로 보내짐. 우리는 큰 기부자에 대해 미주 지역에 홍보하고자 미주 동창회별로 개제를 요청하였으나, 지난 회기까지 기부자에게 유상대 회장님 취임 이후 개제를 받아 주셨음.

- **오인환:** 우리 동창회에서 원하는 것은 협력하는 것이고, 우리 동창회와 조금 더 마음을 더놓고 일하면 좋겠다. 우리는 더 모금 발전 기금과 미주재단이 뜻하는 바가 비슷하니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동문들로부터의 모금을 우리가 하고, 그 외의 후원자를 미주 재단이 찾는 식으로.
- **신용남:** 지금 우리 두 단체의 기능이 너무 비슷하고 겹치며, 미주재단의 현 모금 및 송금에 대한 IRS의 Ruling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화연:** 지금은 결론을 낼 단계가 아닌하다.
- **이상은:** 루머와 오해가 난무하는 상황에

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합니다.

● **한재은:** 맞습니다. 정확한 fact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1:02:00) 제안을 합니다.

[진행발언] 이상운: 시간 관계상 남은 2분 발언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 한국학 연구 스터디 그룹

- 오인환



- i. 회zahl 할 당시 한국학 연구 스터디 그룹 구성 및 지원을 해주기로 했음.
- ii. 회zahl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iii. 워싱턴에 싱크탱크가 약 400여개 있으나,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곳은 없음.

iv. 그중 ICKS (국제 한국학 협의회) 에 제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 단체에서 15,000불 지
원해주면 half-day session을 해 주겠다고 제
안함. 내년 상반기 중에 15,000불 모금하여
test session을 할 예정

v. 이채진 교수, 이강원 교수, 강민구 교수,
김은한 교수 등이 관여.

■ **Mentoring network program**

- 강신용



- i. 현재와 미래의 서울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것이나?
- **이상운:** 이는 손재옥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업아이디어로 미주 동문들과 한국의 젊은 재학생, 동문들간의 멘토링 추진

* 강신용 회장 발표 내용은 8월호에 게재 예정입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튼튼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제27차 평의원 회의 회비

강신용	김인종	배규영	오명순	이대영	조정현	홍선례 홍혜례 황선희
고일석	김정수	백옥자	오봉완	이성숙	조화연	
권기현	김현영	서갑식	오인환	이영인	주중광	
김동광	노명호	서중민	오태요	이용락	주지영	
김명승	박영철	성주경	오홍조	이전구	지홍민	
김문소	박용해	손재옥	유시영	정선주	최경선	
김원영	박종수	신용남	윤상래	정정옥	한경진	
김은한	박평일	안선미	이강원	정태영	한재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7. 7 ~ 2018. 6) ☐ \$150 (2017. 7 ~ 2019.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7. 7 ~ 2018. 6) ☐ \$480 (2017. 7 ~ 2019.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업소등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희장단 이월금	손재욱 (가정 77)	500	최수강 (의대)	100	전희택 (의대 58)	200	500	허주홍 (경영 77)	25
	신응남 (농대 70)	1,200			정동주 (공대 57)	500	65		
	47,347.11	신완섭 (의대 67)	1,800	지부 분담금	정재훈 (공대 64)	110	200	조지아	
	(11/29)	한남체인(3/15)	1,000	남가주	최은관 (상대 64)	300	1,000	백성식 (약대 58)	75
총동창회 보조금	나눔		뉴욕	3,000	하기환 (공대 66)	200		주중광 (약대 60)	2,000
	3,000	김창화 (미대 65)	25	미네소타	하선호 (치대 81)	200		허지영 (문리 66)	2,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북가주	5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3,000	윤상래 (수의 62)	500	북텍사스	강정수 (문리 62)	125		북텍사스	
업소록 광고비			샌디아고	550	이성형 (공대 57)	150			
			시카고	2,400	김윤범 (의대 54)	200	최충권 (문리 59)	200	
가정	권기현 (사대 53)	1,000	알라스카	200	한상봉 (수의 67)	240		샌디에고	
	권철수 (의대 68)	100	오레곤	300				북텍사스	
김원탁 (공대 65)	심상은 (상대 54)	25	워싱턴 DC	2,000	뉴욕				
	김일영 (의대 65)	240	워싱턴주	600	강예드 (사대 60)	400	김군빈 (법대 56)	75	
김창수 (약대 64)	유재환 (상대 67)	125	조지아	600	김병철 (공대 60)	200	박우선 (공대 57)	200	
	남욱현 (경영 84)	480	케네디컷	200	김병숙 (보건 65)	200	임준수 (의대 57)	200	
박종호 (의대 79)	윤우영 (공대 63)	500	캐롤라이나	200	김재경 (농대 58)	200			
	서동영 (사대 60)	240	테네시	200	문석민 (문리 52)	200			
신동국 (수의 76)	임중식 (의대 51)	1,000	플로리다	200	박두선 (공대 68)	100	구행서 (공대 69)	100	
	정동주 (공대 57)	500	하와이	300	박상윤 (문리 54)	40	김연화 (음대 68)	150	
신혜원 (사대 81)	후원금		하트랜드	300	방준재 (의대 63)	200	이금영 (공대 48)	500	
	서동영 (사대 60)	200	휴스턴	300	배병매 (간호 47)	225	조형원 (약대 50)	500	
엄달용 (공대 69)	신응남 (농대 70)	200	*****		배정희 (사대 54)	200	최희수 (문리 67)	75	
	오인환 (문리 63)	200	SNUAA(KOREA)	6,000	신응남 (농대 70)	2,000		아리조나	
염동해 (농대 74)	윤상래 (수의 62)	6,000			양기명 (약대 49)	25			
	윤세웅 (의대)	480	남가주		이경림 (상대 64)	185	박양세 (약대 48)	200	
이경림 (상대 64)	이병준 (상대 55)	1,000	김 영 (수의 63)	500	이운순 (의대 52)	525	지영환 (의대 59)	200	
	이병준 (상대 55)	480	김영순 (음대 59)	400	이전구 (공대 60)	1,100	진명규 (공대 70)	100	
이종호 (간호 69)	정창동 (간호 45)	100	김원탁 (공대 65)	2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영 (치대 74)	240	김일영 (의대 65)	200	이준행 (공대 48)	2,000	오레곤		
정정우 (수의 74)	한재은 (의대 59)	500	김재영 (농대 62)	240			김상순 (상대 68)	200	
	수재민 돌기 후원금		김중표 (법대 58)	500	전재우 (공대 61)	200		300	
정재호 (공대 64)	윤상래 (NE)	300	김진형 (문리 55)	500	정진식 (상대 58)	200	송재용 (의대 69)	200	
	엄달용 (공대 69)	240			정창동 (간호 45)	75			
주기목 (수의 68)	김연화 (음대 68)	100	김창신 (사회 75)	100	조정현 (수의 58)	100			
	지흥민 (수의 61)	240	노영호 (공대 61)	3,000	최한용 (농대 58)	500	오하이오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신응남 (NY)	200	문석민 (의대 52)	200	허선행 (의대 58)	200			
	광고비		민수봉 (상대 55)	25	허유선 (가정 83)	100	김동광 (공대 62)	50	
DUO Info.	손재욱 (PA)	1,000	박인창 (농대 65)	100			성용관 (수의 75)	200	
	DUO Info.	400	박중수 (수의 58)	1,100	뉴잉글랜드				
DUO Info. (10)	황선희 (PA)	200			고일석 (보건 69)	1,000			
	DUO Info. (11/6)	400	김창신 (사회 75)	100	김문소 (수의 61)	80	워싱턴 DC		
DUO Info. (12/8)	합계:	2,400	노영호 (공대 61)	3,000	김병국 (공대 71)	65	강길종 (약대 69)	200	
	DUO Info. (1/9)	400	문석민 (의대 52)	200	김선혁 (약대 59)	100	권철수 (의대 68)	200	
DUO Info. (2/8)	장학금		박인수 (상대 55)	25	김은한 (의대 60)	850	박용길 (약대 56)	200	
	DUO Info. web 2/23)	500	김기형 (경영 75)	125	김재호 (공대 56)	400	박평일 (농대 69)	300	
DUO Info. (4/2)	김동훈 (법대 56)	100	방석훈 (농대 55)	200	송미자 (농대 62)	65			
	DUO Info. (4/30)	400	백우석 (음대 71)	400	윤상래 (수의 60)	40,100	서윤석 (의대 62)	200	
DUO Info. (6/11)	김현학 (의대 57)	100	유재환 (상대 67)	200	윤영자 (의대 60)	100	오인환 (문리 63)	200	
	DUO Info. (6/11)	400	이건일 (의대 62)	3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민항 (공대 46)	100	
JayoneFood (1/22)	박용길 (약대 56)	150	이영선 (상대 58)	500	이제신 (공대 57)	2,000	이영목 (공대 59)	200	
	KISS (1/17)	3,000	이범보 (치대 74)	200	이재신 (공대 67)	200	이인옥 ()	25	
SeAh 이병준	신응남 (농대 70)	300	이범식 (상대 55)	11,000	이희규 (공대 69)	200	장요열 ()	100	
	DUO Info. (4/2)	400	이영숙 (치대 63)	400	전진희 ()	25	최준호 (공대 60)	25	
DUO Info. (4/30)	심상은 (상대 54)	100	이영일 (문리 53)	200	정성주 (박영철)	3,000	한의생 (수의 60)	200	
	DUO Info. (6/11)	400	이현찬 (치대 75)	200	정정욱 (의대 60)	1,100			
서울대병원 강남 1/22)	김원섭 (농대 70)	300	임창희 (공대 73)	100			워싱턴 주		
	KISS (1/17)	3,000	전경철 (공대 55)	400	정태영 (문리 71)	100			
SeAh 이병준	이원섭 (농대 77)	1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	김현학 (의대 57)	1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서울메디칼 (3/15)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전상욱 (사대 52)	500							

김승태 (의대 57)

400

하트랜드

오명순 (가정 69)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대 70)

10,000

하트랜드

최은관 (상대 64)

300

휴스턴

김욱균 (공대 54)

200

휴스턴

전기주 (상대 60)

500

휴스턴

최영기 (공대 63)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69명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재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선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충원 (문리 66) 차홍완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식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종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록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교인) - * 표: 한변이상 내신 분
---	--	--	---	-------------------------------------	---	---	----------------------------	---	-----------------------------	--	--	----------------------------	----------------------------	---	--	--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P.O. Box 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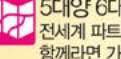
재정 / 보험 / 컨설팅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균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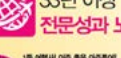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Rd.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마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문의: D.C. 상훈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요. <편집부>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정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8개국 선교지 11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희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명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석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북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
SINCE 2003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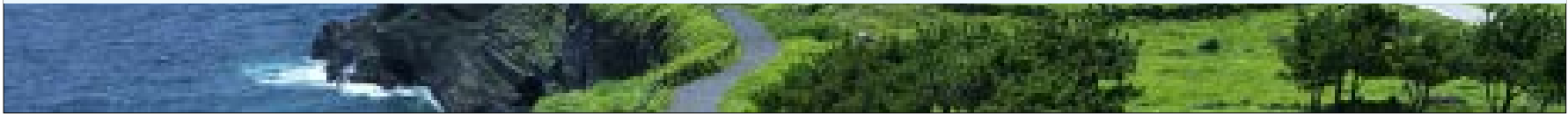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홈커밍데이 참가 안내

Let's go HOMECOMING DAY together	■ 10월 16일 (화) -18일 (목): 제주도 관광	■ 10월 21일 (일): 홈커밍데이 행사
제14대 미주 동창회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모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다음과 같은 제39차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일 (화) __ 김포공항 개별 출발, 오전 9시~10시 사이 출발 제주공항 도착 시, "US 아주투어" 가이드와 만나야 함. 협재 해수욕장, 금능 식물원, 테마 파크	9 am __ 접수: 모교 보조운동장 9 am ~ 12:30 pm __ 환영 행사 (편약산 등반) 12:30 ~ 15:30 pm __ 축하 행사 (본 행사) 17 pm ~ __ 행복기부 콘서트 (대운동장)
■ 10월 15일 (월): 모교 개교 기념식	17일 (수) __ 추상철리, 마라도, 용머리 해안, 수목원 테마 파크, 특산품점	모든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미주 동문님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신 시간에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적 참여	18일 (목) __ 성읍 민속마을, 해녀촌 탐승수속 후 출발 (PM 1:30 이후 비행기 탑승)	홈커밍데이 참가 관련 문의: 백옥자 (Jace Lee), 조직국장 T: 213-388-4000, C: 818-395-1967
	문의: 백옥자 (Jace Lee) T: 213-388-4000, C: 818-395-1967 한국 문의 : 고훈관 차장 Tel: 02-522-8686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